



제15회

# PKO 발전 세미나

The 15th Peacekeeping Operations development Seminar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추진」

「Promoting Advancement of ROK Peacekeeping Operations Participation」

| 일시 | 2019. 10. 22(화), 09:30 ~ 15:30

Date : 09:30 ~ 15:30, Tue, Oct. 22th, 2019.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Venue : KNDU Convention Center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ROK PKO Cent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한국유엔체제학회  
KACUNS

Korea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 프로그램

|                     |       |                      |
|---------------------|-------|----------------------|
| 09:30 ~ 10:00 (30') | 등 록   |                      |
| 10:00 ~ 10:30 (30') | 사 회 자 | 육군대령 김효수 (국제평화활동센터장) |
|                     | 개 회 사 | 육군중장 이석구 (국방대 총장)    |
|                     | 축 사   | 이순진 前 합참의장           |
|                     | 기조연설  |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

## 제1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추진 전략 및 구현 방안 (사회 : 선문대 박흥순 교수)

|                      |                             |   |
|----------------------|-----------------------------|---|
| 10:30 ~ 12:30 (120') | ① 「UN PKO 참여 선진화 로드맵」 발표    |   |
|                      | 발 표 자                       | 외교부 유엔과   |
|                      | ② 유엔평화유지기술(개방형GIS기술)개발 협력사례 |   |
|                      | 발 표 자                       | 강혜경 박사 (국토연구원)  |
|                      | ③ PKO 병력 공여 발전 방향           |   |
|                      | 발 표 자                       | 정장수 전문교수 (국제평화활동센터)   |
|                      | ④ 중견 대한민국의 UN PKO 리더십 발휘 방안 |   |
|                      | 발 표 자                       | 육군소령 손대선 (육군 2사단)   |
|                      | 토 론 자                       | 위승호 前 국방부 정책실장 / 前 국방대 총장<br>이신화 교수 (고려대)<br>육군준장 김태업 (미 8군사령부 부사령관, 前 동명부대장) |
| 12:30 ~ 14:00 (90')  | 오 찬                         |   |

## 제2부. 평화활동과 개발간 결합성을 위한 새로운 사고와 활동방안 (사회 :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

|                     |       |                        |
|---------------------|-------|------------------------|
| 14:00 ~ 15:30 (90') | 토 론 자 | 김선 해외사업본부장 (굿네이버스)     |
|                     |       | 조대식 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                     |       | 최운정 본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                     |       | 박순향 전문교수 (국제평화활동센터)    |
| 15:30 ~ 15:35 (5')  | 폐 회 사 | 육군대령 김효수 (국제평화활동센터장)   |

# PROGRAM

|                     |                        |   |
|---------------------|------------------------|---|
| 09:30 ~ 10:00 (30') | Registration           |   |
| 10:00 ~ 10:30 (30') | Host                   | Col. Kim, Hyo Soo (Director of PKO Center)                        |
|                     | Opening Remarks        | LTG. Lee, Suk Gu (President of KNDU)                              |
|                     | Congratulatory Remarks | Lee, Sunjin (Former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                     | Keynote Remarks        | Kwan, Tae Hwan (President of Korea Defense Diplomacy Association) |

## Session 1.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Chairman : Prof. Park, Heung Soon)

|                      |   |   |
|----------------------|---|---|
| 10:30 ~ 12:30 (120') | ① Roadmap of Advancement of UN PKO Participation                              |   |
|                      | Presenter   | U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                      | ② Case of Cooperation of Developing Technology of UN PKO[Open GIS Technology] |   |
|                      | Presenter   | Dr. Kang, Hye Gyu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
|                      | ③ Program of Advancing PKO Contributing Troops                                |   |
|                      | Presenter   | Prof. Jung, Jang Su (PKO Center)  |
|                      | ④ Exhibiting Measures for UN PKO Leadership of Mid-sized ROK                  |   |
| 12:30 ~ 14:00 (90')  | Presenter   | Maj. Son, Dae Sun (ROK Army)  |
|                      | Discussant  | Wie, Seoung Ho (Form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Former President of KNDU)<br>Prof. Lee, Shin Hwa (Korea University)<br>BG. Kim, Tae Eop (U.S. 8 Corps Deputy Commander) |
|                      | Lunch   |   |

## Session 2. New Thinking and Action Plan for the Combina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Chairman : Prof. Hong, Gyu Deok)

|                     |                 |   |
|---------------------|-----------------|---|
| 14:00 ~ 15:30 (90') | Discussant      | Kim, Sun (Director of overseas business, Goodneighbors) |
|                     |                 | Jo, Dae Sik (Secretary General, KCOC)                   |
|                     |                 | Choi, Woon Jung (Director, Childfund Korea)             |
|                     |                 | Prof. Park, Soon hyang (PKO Center)                     |
| 15:30 ~ 15:35 (5')  | Closing Remarks | Col. Kim, Hyo Soo (Director of PKO Center)              |



# C O N T E N T S

## 목 차

|   |            |
|---|------------|
| <b>Session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추진 전략 및 구현 방안</b><br><b>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Activities</b><br><b>and Implementation Measures</b> |            |
| Operations  |            |
| ① 「UN PKO 참여 선진화 로드맵」 발표 . . . . .  | 9          |
| Roadmap of Advancement of UN PKO Participation  |            |
| ② 유엔평화유지기술(개방형GIS기술)개발 협력사례 . . . . .   | 15         |
| Case of Cooperation of Developing Technology of UN PKO[Open GIS Technology]   |            |
| ③ PKO 병력 공여 발전 방향 . . . . .   | 40         |
| Program of Advancing PKO Contributing Troops  |            |
| ④ 중견 대한민국의 UN PKO 리더십 발휘 방안 . . . . .   | 66         |
| Exhibiting Measures for UN PKO Leadership of Mid-sized ROK  |            |
| <b>각 활동별 특별대표 사령관 명단 . . . . .</b>  | <b>106</b> |





#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The 15<sup>th</sup> Peacekeeping Operations Seminar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추진」

「Promoting Advancement of ROK Peacekeeping  
Operations Participation」

## 제1부 Session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추진 전략 및 구현 방안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사회자 Moderator**

박흥순 교수

Prof. Park Heungsoon

**발표자 Speaker**

- 외교부 유엔과  
U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김혜경 박사 (국토연구원)  
Dr. Kang, Hye Gyu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 정장수 전문교수 (국제평화활동센터)  
Prof. Jung, Jang Su (PKO Center)
- 손대선 육군소령 (육군 2사단)  
Maj. Son, Dae Sun (ROK Army)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 2019.10.22

##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로드맵



### 목 차

- 1 PKO 선진화 추진 배경
- 2 유엔 PKO 최근 동향
- 3 PKO 선진화 추진방향
- 4 PKO 선진화 추진 전략
- 5 2020-23년 분야별 과제안

## 1. PKO 선진화 추진 배경

- 2018년 : 우리나라 PKO 참여 25주년
- 2019년 : 우리나라 PKO 10대 재정공여국 그룹 진입(10위)
  - 우리 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증대
- 2023년 :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진출 목표
  - PKO는 유엔의 평화안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 활동이자 안보리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확실한 입지 구축 필요
- 효과성 및 가시성 측면에서 우리 PKO 선진화 추진 필요

## 2. 유엔 PKO 최근 동향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새로운 도전
  - 평화협정 이행 감독 뿐 아니라 분쟁 관리 과업
  - 테러 및 범죄조직 등 다양한 무장단체에 의한 공격 빈번
  - PKO 임무단의 임무 복잡화
  - 예산감축 압박 증가
  - 임무수행능력 및 책임성 문제 대두
-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구상 및 조직 개편 추진
  - 평화유지구상(A4P : Action for Peacekeeping)
  - 평화유지활동국(DPKO) → 평화활동국(DPO) 확대

## 2. 유엔 PKO 최근 동향

### ▪ 시사점

- PKO의 효과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여 추진 필요
- 임무단의 안전, 기동성, 정보능력 관련 자산역량에 대한 높은 평가
- (선진 병력공여국) 임무단 전체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자산과 역량
- (개도국 병력공여국)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설 및 장비, 기술 기여 수요 증대

## 3. PKO 선진화 추진 방향

- (이슈 주도) 비교우위 분야에서 정책 비전 및 성과 도출
  - 신기술 활용, 평화구축, 민군작전 기준 수립 등 분야 검토
  - 평화활동 우호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평화유지구상(A4P) 관련 핵심 논의 적극 참여
- (병력공여 선진화) 병력규모 유지 및 핵심임무 참여
  - 주요 병력공여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 사무국-임무단과 적극 소통 및 경찰 파견 확대 등

### 3. PKO 선진화 추진 방향

- **(기여 다변화) 기술기여, 틈새기여, 훈련기여 등 전략적 접근**
  - 개발 완료 기술/장비 기여,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재정 지원 등
  - 전문화된 역량 및 자산 공여 기능 분야 검토
  - 개도국 대상 훈련 및 역량 구축 지원 추진
- **(여성 참여 확대) 국내 및 개도국 여성의 PKO 참여 진출 지원**
  - 우리나라의 여성 이슈 관련 기여에 대한 높은 평가
  - 국내 여성 군경 인력 참여 확대 정책적 지원
  - 개도국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AU 평화기금 등 수단 적극 활용

### 3. PKO 선진화 추진 방향

- **(우리 국민 진출 지원) PKO 중고위직 진출 지원 강화**
  - 적정 인사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훈련 과정 참여 지원
  - 인력양성을 위한 인재풀 작성 및 관리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 4. PKO 선진화 추진 전략

- (대표 기여 공약 발굴) 한국의 대표적 기여로서 가시성 제고
- (장관회의 활용) 2021.4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예정
  - PKO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
  - 각국 공약 발표 장려 및 회의 결과문서를 통한 실질성과 도출 가능
- (파트너십) 아프리카, 아태 등 지역 파트너십 전략적 확대
  - AU 평화기금 활용 및 새로운 기술 기여 등 기여 다변화 추진
  - 유엔 사무국과의 소통 강화 및 우리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도모

## 5. 2020-2023년 분야별 과제안

- 이슈 주도
  -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획 및 운영 / 군자산 기여 등 공약 검토 및 발굴
  - 신기술과 PKO, 평화구축과 PKO 등 새로운 이슈 주도
  - 유엔 평화활동국(DPO)와의 정책협의회 추진
- 병력공여 선진화
  - 레바논 동명부대 임무 확대 검토
  - 부대별 민군작전 관련 임무단과의 소통 강화
  - PKO 전문 참모 후보군 양성

## 5. 2020-2023년 분야별 과제안

- **기여 다변화**
  - 한-유엔 평화유지국(DPO) 간 협력사업 추진
  - 항공자산, 의료장비, 지뢰제거 및 경찰감시 장비 등 유엔 부족자산에 대한 기여 검토
  - 훈련 기여 분야에서 가시성 높은 공약 발굴
- **여성/경찰/고위직 진출 강화**
  - 우리 여군 및 경찰의 참여 확대 추진
  - PKO 유경험 민군경 인사 대상 훈련 과정 참여 지원
  - PKO 분야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기여 증진

감사합니다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 유엔 평화유지기술개발 협력사례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분야

2019.10.8 (화)

국토연구원 강혜경 연구위원  
국토교통 R&D 연구단장

 KRIHS 국토연구원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발표자



**강혜경 / 연구위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연구원

○ 주요경력

- 2017~현재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 및 SP3 외장
- 2014 Web and Wireless GIS 기술이사
- 2008~2010 ISO/TC211 ISO19151 표준개발책임자
- 2006~2007 미국 메일루핀대 국가GIS센터(NCGIA) 연구원
- 2002 미국 Environment System Research Institute (ESRI)사
- 1999~2006 부산대학교 컴퓨터정보 및 통신 연구소 연구원
- 1997~1999 한국 정보문화센터 부설 정보통신교육원 (GIS교육센터)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http://www.krihs.re.kr/intro/organizationView.do?s\\_idx=248&center=59&center2=93](http://www.krihs.re.kr/intro/organizationView.do?s_idx=248&center=59&center2=93)

2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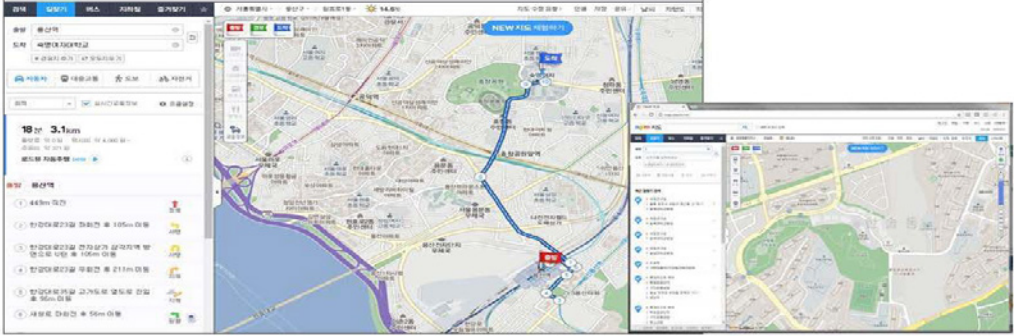
## Open GIS Technology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공간정보 (GIS)

- ※ **공간정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의 속성정보와 기하정보를 결합시킨 위치정보(georeferenced data)
- ※ **유사용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4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공간정보기술

※ 공간정보기술: 공간정보를 취득·저장·분석·가시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공간정보 분석/가시화 기술**  
 3D/실시간 공간 (3D/Real-time Spatial), 가상현실 (VR), GIS, GIS (웹, 데스크톱, 모바일), 1-3세부 웹 기반 Geo-Portal: Raster 및 Vector

**공간정보 취득/변환 기술**  
 2-2세부 위치기반 멀티미디어 (위치기반 멀티미디어), 2-1세부 UAV 기반 (UAV 기반) 항공 사진 촬영 (항공 사진 촬영), 1-2세부 오픈 소스 기반 지도 편집 및 품질관리 (오픈 소스 기반 지도 편집 및 품질관리)

**공간정보 서비스 기술**  
 1-1세부 공간 데이터 변환기 (공간 데이터 변환기)

**공간정보 저장관리 기술**  
 GeoServer 1-3세부 오픈 소스 공간데이터 서버 (오픈 소스 공간데이터 서버), PostgreSQL 1-1세부 오픈 소스 DBMS (오픈 소스 DBMS), PostGIS 1-1세부 오픈 소스 GIS 기능 및 성능 개선 (오픈 소스 GIS 기능 및 성능 개선)

5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 (1)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Free and Open-Source Software, FOSS):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소스코드 공개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재  
 - 지자체, 스타트업/벤처기업, SW미보유기업이 저비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 개발자 확보  
 - 다국어 지원  
 - 해외기술지원

  
 Android

  
 iPhone  
 iOS

6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 (2)

Android Open Source Project  
These aren't the droids you're looking for  
<https://source.android.com/>

Repositories: 99 Packages People

Grow your team on GitHub

<https://github.com/aosp-mirror>

Find a repository... Type: All Language: All

platform\_frameworks\_base Mirror Top languages

7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 (3)

- ※ 소프트웨어 가격이 낮음
- ※ 보안성 높음(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등의 malware 방지)
- ※ 국제표준 준수로 기술간 조합/재구성/확장 쉬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otal Cost of Ownership for Open Source Software and Commercial Software".

| Category          | 상용 독점 SW    | 공개 SW                      |
|-------------------|-------------|----------------------------|
| SI Cost           | High        | High                       |
| Overhead Cost     | High        | High                       |
| S/W Cost          | High        | Low                        |
| H/W Cost          | High        | High                       |
| <b>Total Cost</b> | <b>High</b> | <b>Low (63% reduction)</b> |

8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 (4)

**보도자료 I-KOREA4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it.go.kr

|      |                      |         |                              |
|------|----------------------|---------|------------------------------|
| 보도일시 | 2018. 7. 31(수) 16:00 | 기간(연월일) | 7. 31. 06:00부터 보도에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포일시 | 2018. 7. 4(수) 16:00  | 담당부서    | 소프트웨어정책과                     |
| 담당과장 | 최은호(02-2110-1810)    | 담당 자    | 남경은 사무관(02-2110-1848)        |

**개방형 기술혁신, 공개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개최 -

**‘18.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R&D’ 산업혁신과 성장촉진(활용국→기여국)**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 집단 지능을 활용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산업분야가 소프트웨어와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07.05.]

삼성전자는 왜 공개SW협회에 가입했을까?  
 임기혁 | 2017년 7월 24일

**“삼성전자 제품의 90%는 오픈소스로 개발된다.”**  
 - 박수용 삼성전자 오픈소스그룹장

스물 여덟살이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그룹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듯하게 느껴진다.



[ZNetKorea, BylineNetwork 19.07.2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핵심**  
 [ETnews 2018.11.20]

**‘18.11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오픈소스 SW’ 급부상**

ETnews 2018.11.20 14: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ETnews, 2018.11.20.]


**[국감 2018] 공개SW 경쟁력 하락,**  
 임기혁 | 2018.10.15

한국 공개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일부 하락해 핵심기업이 외국인 기업이 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개SW 경쟁력 하락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18 국감, “공개SW경쟁력 제고 대책 필요”**  
 - 송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IT Chosun 18.10.15]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4년 정부 R&D,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개발

- ※ 국가R&D 기획/발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R&D 총괄기관)
- ※ R&D연구단: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 ※ 연구목표 :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 누구나(개인·기업·정부) 무료로 사용가능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연동되는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기반 공간자료 가공분석제공기술 개발
  - 뉴미디어 공간정보 콘텐츠 활용 및 연계기술 개발
  - 공공기관 현상검증\*으로 국제수준 성과물 개발 및 실용화 · **제품화**
- ※ 총 연구기간 : 2014. 8. 14 ~ 2019. 12.31 (5년 4개월)
- ※ 총 연구비 : 10,857 백만원(정부 8,124 백만원 / 민간 2,733 백만원)

10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유엔 PKO와 공간정보기술

##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SDGs를 위한 유엔 활동들

**Peace and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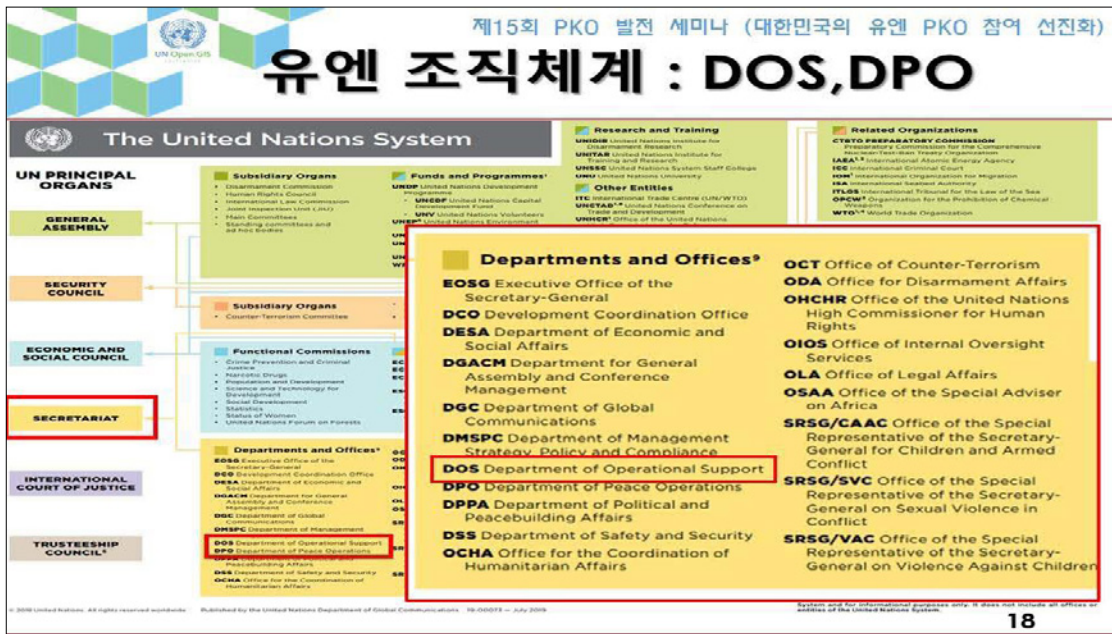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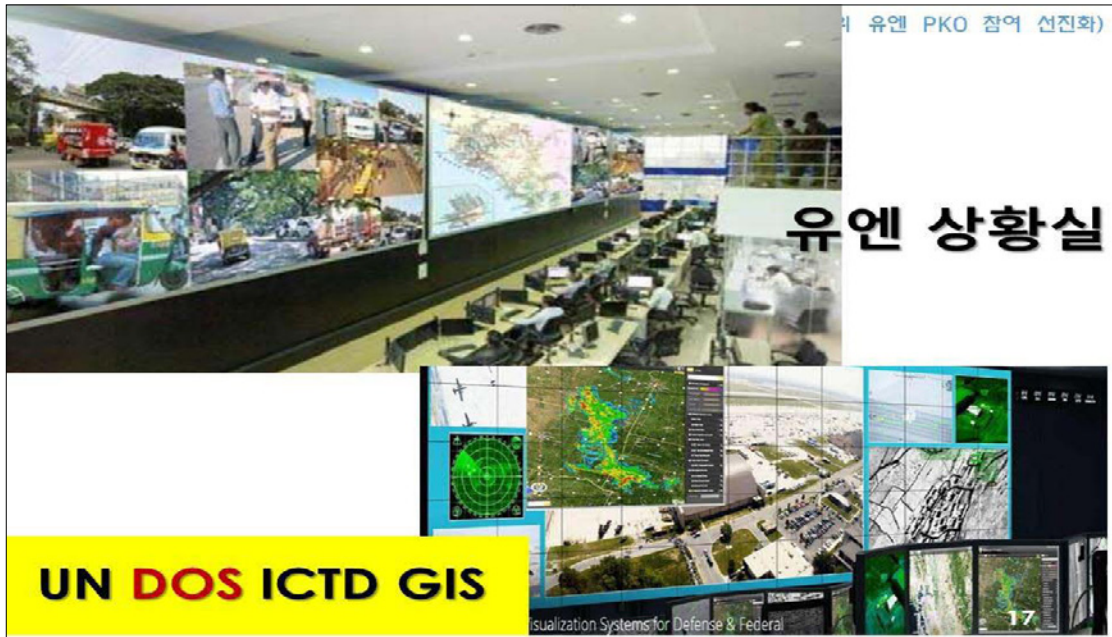
15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유엔 활동들과 지도(공간정보)

**Peace and Security**

16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UN DOS ICTD GIS

**뉴욕본부 + 기술센터 2곳 + 현장(Field Missions)**

**UNHQ**



**UN Field Missions**  
(PK & SPMs)



**UNGSC**  
(Brindisi)



**Secondary Active Telecomm Facility**  
(Valencia)



"Twin Technology Centres"

**19**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UN DOS ICTD GIS

**UNGIS (HQ, GSC, Missions) provides geospatial information support to the full range of UN operations**

**Principal duties include:**

1. Provide accurate and timely geospatial information in support of the decision-making and operational needs of
  - . UN Security Council
  - . UN Secretariat
  - . UN Peace Operations (DPKO, DPA, DFS)
  - . UN Operations & Crisis Centre (UNOCC)
  - . UN field missions
2. UN field missions & GSC  
Peacekeeping & Special Political missions
3.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on  
International Boundary issues
4. Co-Secretariat (with SD/DESA) of  
UN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UN-GGIM)



**20**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UN DOS ICTD GIS

뉴욕본부 + 기술센터 2곳 + 현장(Field Missions)

*3-tier: UNHQ-UNLB/GSC-Missions*

**UNGIS (UNHQ)**  
Strategic Guidance  
Policy & Planning  
Collaboration  
International Boundary

**GIS Centre**  
UNLB/UNGSC  
Map Production  
Geo Analysis  
Data Streamline  
Geo Solutions

1. Enterprise GIS system
2. UN Earth
3. UN Geo-database (UNmap)
4. UN Gazetteer
5. Satellite image database
6. UN Open GIS (under development)

**Mission GIS**  
Day-to-Day Operations  
Customized services  
Data Collection  
Terrain Analysis

**21**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유엔 오픈소스기술 수요 -(1)

**We all focus on different needs and issues, but we need the same for easy access to open-source technology**

**22**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유엔 오픈소스기술 수요 -(2)

**We all need access to platforms, knowhow, systems technology, the whole spectrum of open-source GIS solutions**

23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유엔 오픈소스기술 수요 -(3)

24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유엔 오픈소스기술 수요 -(4) How to smartly work together?



25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UN Open GIS Initiative

UN Open GIS Initiative was established in 2016 with the aim to identify and develop Open Source GIS bundl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UN,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experience of the contributing partners.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UN Open GIS Initiative

27

# UN Open GIS Initiative

**UN Open GIS Initiativ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address Geospatial Technology requirements to wider UN Community and, through the United Nations, to its operational partners (NGOs and humanitarian community) but also to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academia.**

28



# 한-유엔 기술협력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분야-



## 한-유엔 기술협력 배경

### UN DOS ICTD GIS

- ※ PKO 현장 내 기술공유 (UN군, 주둔국, 현지전문가)
- ※ PKO 기술의 연계, 통합, 확장
- ※ 유엔 활동에 기술공급
- ※ 기술지속성, 비용절감, 중복방지

### 한국 (R&D연구단)

- ※ 수요처 **현장검증** 중심의 고품질 실용적 R&D 기술개발
- ※ UN 중심의 해외국방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인지도 향상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5년: R&D연구단 – 유엔 기술워크숍

※ 한-유엔 기술워크숍 2회



<유엔기술워크숍 1차>



<유엔기술워크숍 2차>

< UN 기술협력 공문교환 15.6 >

32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6년: 유엔 기술워크숍, PKO 심포지움



<16.3 (UN GSC, 이탈리아 브린디시) : UN Open GIS Initiative 결성> : 한국, 미국, 이탈리아, 스리랑카 개도국 국방부 등



20161107 UN PKO Symposium(주요인사)



<유엔 PKO 심포지움 (서울시청)>

33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7년: 유엔 기술시연회, 공간분석 기술워크숍

≈ 17.4 (UN GSC, 이탈리아 브린디시) : 라이브 드론맵 기술시연회/교육



20170428 유엔 라이브드론맵 기술시연(산탈라치오 이탈리아공군기지-드론비행팀)



20170428 유엔 라이브드론맵 기술시연(이원영교수 보 설명(1))



<유엔 기술교육>



20170428 유엔 라이브드론맵 기술시연(에이알 익스 드론)



20170428 유엔 라이브드론맵 기술시연(김피예를 UN사무차장에게 설명중)



20170428 유엔 라이브드론맵 기술시연-25개국 초청(유엔 캠퍼빌 워크숍지자체-이탈리아 주)

34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7년: 유엔 기술시연회, 공간분석 기술워크숍

≈ 17.11 (한국 세종, 국토연구원) : 공간분석 기술워크숍





35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8년: 유엔 엔테베 기술교육, 현장검증

<우간다 엔테베 현장검증>



<UN OpenGIS Initiative 회의>



<시나리오 역할별 그룹교육>



<현장검증 시나리오 실명>



<Kaisalpa: Mission Common Operation Picture>



<UN 남수단사령부 전문가 토론>

<독일 베를린 UN 심포지움>



<심포지움 개최>



<기술협력 사례 발표, 독일 국방부 시연>

<탄자니아 디르살렘 국제회의>



<FOSS4G 2018 총회 모습>



<추진배경 소개>



<UN Open GIS 르완다측 전문가>



<아카데미 세션 발표장 모습>



<기술체계 발표>



<SP3 연계통합 업무협의>

36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9년: 유엔 Open GIS 총회, 기술교육




**<제4차 UN Open GIS Workshop 주관>**  
 유엔 산하 10개조직 및 일본(지리원), 영국(국방부), 미국(국방부), 국제표준기구(ISO) 등 관계자 참석





ISO10160 개발책임자 발표  
 ISO19160 개발책임자 발표

일본지리원 기술4분과 성과발표



**GeoNode개발책임자 Alessio Fabiani 발표**  
 -World Bank, UNICEF 등 공공기관 개발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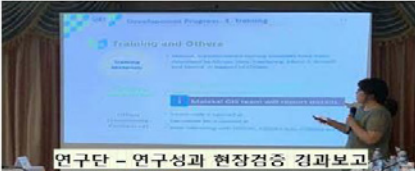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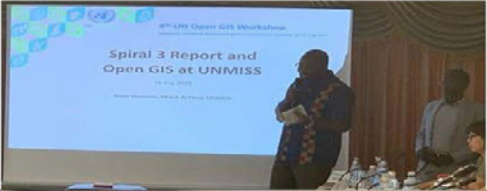
**MINUSCA 사령부 GIS Officers**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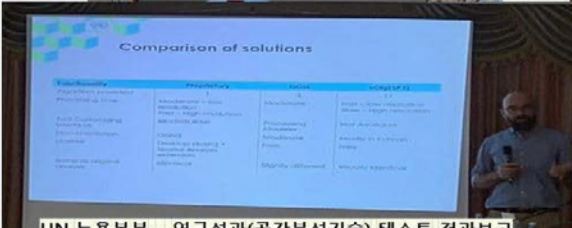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2019년: 유엔 Open GIS 총회, 기술교육 -(2)

✓ 현장검증 (테스트 및 피드백 보고)

연구단 - 연구성과 현장검증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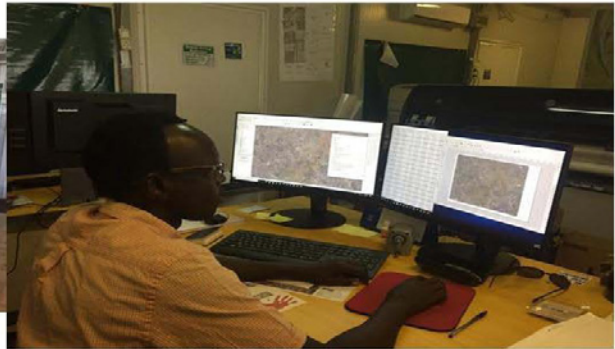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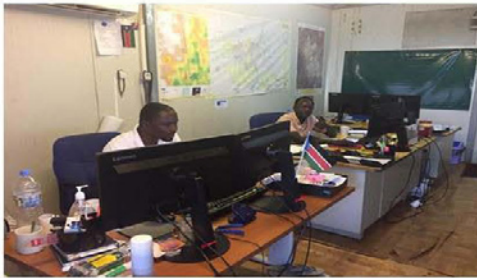
UN 뉴욕본부 - 연구성과(공간분석기술) 테스트 결과보고

UNMISS 사령부 - 연구성과(공간분석기술) 사용결과 보고

38

## 2019년: 유엔 Open GIS 총회, 기술교육 -(3)

UNMISS 사령부에서 Open GIS 사용 중인 모습



39

# 한-유엔 기술협력 의의

## -정부 R&D 측면-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정부 R&D 성과의 글로벌 품질 확보


**2018년 과기정통부 ICT R&D 투자규모 4조 6천억**  
**국제기구 협력·실증으로 해외시장 경쟁력있는 고수준 고품질 기술개발 및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정부 R&D 투자 방향(과기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신의회 운영위)**

|  |   |   |   |   |   |                            |   |                            |   |
|--|---|---|---|---|---|----------------------------|---|----------------------------|---|
| <b>목표</b>  |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b>사람 중심의 국가 R&amp;D 투자 강화</b>   |   |   |   |   |                            |   |                            |   |
| <b>투자 영역</b>   |  과학기술 혁신 (혁신성장 동력)  공공 수요  산업 선도  |   |   |   |   |                            |   |                            |   |
| <b>4대 분야 12대 중점 투자방향</b>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① <b>향외적인 연구환경 조성</b></td> <td style="width: 50%;">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br/>                     * 사람 중심 연구생태계<br/>                     *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td> </tr> <tr> <td>② <b>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b></td> <td>                     *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amp;D<br/>                     * 국민건강 및 생활의 질 향상<br/>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td> </tr> <tr> <td>③ <b>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기술력</b></td> <td>                     * 4차 산업혁명 대응 R&amp;D<br/>                     * 신시장·신사업 R&amp;D<br/>                     * 산업경쟁력 제고 R&amp;D                 </td> </tr> <tr> <td>④ <b>과학기술 기반 고급 인력의 창출</b></td> <td>                     * R&amp;D 일자의 생태계 구축<br/>                     * 신기술·신서비스 일자의 창출<br/>                     * 미래대비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td> </tr> </table> | ① <b>향외적인 연구환경 조성</b>   |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br>* 사람 중심 연구생태계<br>*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 ② <b>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b>   | *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br>* 국민건강 및 생활의 질 향상<br>*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③ <b>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기술력</b> | * 4차 산업혁명 대응 R&D<br>* 신시장·신사업 R&D<br>* 산업경쟁력 제고 R&D | ④ <b>과학기술 기반 고급 인력의 창출</b> | * R&D 일자의 생태계 구축<br>* 신기술·신서비스 일자의 창출<br>* 미래대비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
| ① <b>향외적인 연구환경 조성</b>  |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br>* 사람 중심 연구생태계<br>*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   |   |   |   |                            |   |                            |   |
| ② <b>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b>  | *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br>* 국민건강 및 생활의 질 향상<br>*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   |   |   |                            |   |                            |   |
| ③ <b>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기술력</b>   | * 4차 산업혁명 대응 R&D<br>* 신시장·신사업 R&D<br>* 산업경쟁력 제고 R&D   |   |   |   |   |                            |   |                            |   |
| ④ <b>과학기술 기반 고급 인력의 창출</b>   | * R&D 일자의 생태계 구축<br>* 신기술·신서비스 일자의 창출<br>* 미래대비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   |   |   |   |                            |   |                            |   |
| <b>투자 시스템 혁신</b>   | 대형 R&D 관리강화, 투자 효과성 제고 등을 통해 R&D 대혁신 기반 마련<br><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33%;"> <b>패키지형 R&amp;D 투자 플랫폼 도입</b><br/>                     기술·인력·제도·정책 통합 지원<br/>                     Fact Track 사업 도입                 </td> <td style="width: 33%;"> <b>R&amp;D 투자 효율화</b><br/>                     국영 과제 연계심화<br/>                     공동투자·공동 추진<br/>                     출연연 이전·병거 연계                 </td> <td style="width: 33%;"> <b>R&amp;D 지원체계 개편</b><br/>                     정부-회사-연구기관<br/>                     대학 R&amp;D에 민간투자<br/>                     기획형 R&amp;D 지원체계 개편                 </td> </tr> </table>   | <b>패키지형 R&amp;D 투자 플랫폼 도입</b><br>기술·인력·제도·정책 통합 지원<br>Fact Track 사업 도입  | <b>R&amp;D 투자 효율화</b><br>국영 과제 연계심화<br>공동투자·공동 추진<br>출연연 이전·병거 연계 | <b>R&amp;D 지원체계 개편</b><br>정부-회사-연구기관<br>대학 R&D에 민간투자<br>기획형 R&D 지원체계 개편 |   |                            |   |                            |   |
| <b>패키지형 R&amp;D 투자 플랫폼 도입</b><br>기술·인력·제도·정책 통합 지원<br>Fact Track 사업 도입 | <b>R&amp;D 투자 효율화</b><br>국영 과제 연계심화<br>공동투자·공동 추진<br>출연연 이전·병거 연계   | <b>R&amp;D 지원체계 개편</b><br>정부-회사-연구기관<br>대학 R&D에 민간투자<br>기획형 R&D 지원체계 개편 |   |   |   |                            |   |                            |   |

41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확대

**참여·협력기반 연구개발 중심 안전한 공여품목 확보로 선진국형 국제사회 기여 확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국정목표에도 기여**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 과제목표**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경비행기·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가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인권·테러리스크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추진
  -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 기대효과**

-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무효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42



##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시장 인지도 향상

- ※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인지도 향상
- ※ 연구개발·협력 중심으로 **UN 내부 조달시장**에 점진적 진입 (경쟁완화)
  - 우리 군 파병 시, 유엔에 적용한 기술 장착으로 파병부대 선진화
- ※ UN에 기술공여 후, 유엔협력국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 (기술호완성 확보)



## 한-유엔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기반조성: 기술협력 법제도 정비

### 현재 법률

**유엔 기술협력 용어, 협력범위, 협력계획수립, 조직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항 추가하여 기술협력 근거가 되도록 법률개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23호, 2015.2.3. 일부개정] 개정공시내용

외교부(유엔과), 02-2100-753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현재) 파견부대(국군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라 함은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런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정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합정 이행 지원, 감전 감시, 치안 및 안전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적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공함이나 전함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 "재향"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향(태권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45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의 유엔 PKO 참여 선진화)

## 기반조성: 기술협력 추진체계 마련

### 범부처 PKO 기술협력 추진체계 설립/운영

- (추진체계) 총리실 산하 「(가칭) 평화유지 기술협력 위원회」 신설
- (순환적 협력체계) 유엔 수요중심 협력 기획 → ICT·국토·건설·교통·산업 부처별 기술선정 → 기술평가·현장검증 → 기술공여
- (유엔 기술수요 조사) PKO 기술협력 심포지움 등의 유엔 회의 개최, 유엔 전문가 초청 및 개별면담을 통해 유엔의 기술수요 파악
- (기술콘텐츠 발굴) 각 부처소관 기술·R&D를 유엔 협력기술로 지정

46



## 기술개발 협력지원 - 정부R&D 연계

- ※ PKO 시장을 겨냥한 정부 R&D 기획
- ※ 유엔 PKO 현장중심 R&D 기술검증 및 R&D성과 기술공여
- ※ 기술지원, 기술교육, 파병비용 회수 등 유엔 기술협력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기술 현장적용 지원

- ※ 기술패키지 공여: 컴퓨터+스마트폰+드론+소프트웨어  
- UNMISS, MINUSCA 등에 유엔 GIS 군대상 약 30 패키지
- ※ 유엔 현장기술 유지관리 비용 첫 2-3년 지원



**UN 선진화로드맵 세미나**

# 감사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기술개발 협력사례  
-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분야

국토연구원 강혜경 연구위원  
hkkang@krihs.re.kr

**KRIHS** 국토연구원

# UN PKO 병력공여 발전 방향

– PKO 작전환경 변화와 UN 평화활동국 軍 능력 소요 중심 –

전문교수 정장수 (국방대학교 PKO센터)

- I. 머리말
- II. 변화하는 유엔평화활동
- III. 한국군 UN PKO 참여 성과와 한계
- IV. 유엔 PKO 군 임무수행 능력요구
- V. 한국 유엔외교와 한국군 기여방향
- VI. 병력공여발전 방향
- VII. 맺음말

## I. 머리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ited Nation)은 지난 70여 년 역사 동안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하고 중추적인 중견국으로써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이 과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UN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제사회의 희생과 지원이 크게 기여 하였다고 본다.

유엔은 1945년 세계평화와 안전, 인권, 개발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유엔은 창설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집단안보 차원에서 한국전쟁에 적극 개입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세력의 불법 침략으로 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UN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고 발전하였다. UN이 창설된 이후 UN이 이룬 많은 성과 중에서 UN의 한국전쟁 참여와 전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의 설립 목적에 아주 잘 들어맞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최초로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UN PKO)을 파병한 이후 26년간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기여를 하여왔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태양의 후예’ 드라마 인기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UN PKO 활동은 국민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년간의 평화유지 활동을 냉정히 돌아보면 많은 성과와 함께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냉전 이후 국제분쟁의 양상과 위협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UN PKO 활동도 과거와 다르게 다차원·복합적인 임무로 변화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PKO 임무단은 다차원임무단(Multi-dimensional Mission)으로써 평화구축(Peace-Building)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엔안보리의 위임명령(Mandate)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UN PKO참여 활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90년대의 평화유지활동의 성격과 임무수행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평화유지활동도 재건사업과 민군활동의 범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요구를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의 A4P 이니셔티브와 유엔 평화활동국(UNDPD)의 ‘군·경찰 능력 소요(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 임무단의 핵심적 과업에 기여하고 효과성,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군의 중·장기적 UN PKO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변화하는 유엔평화활동

### 1. UN PKO 70년 역사와 도전요소

가. 1948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중동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UN이 최초로 개입한 UNTSO(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활동 이후 유엔은 71개의 UN PKO Mission(평화유지임무단)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14개의 임무단이 활동 중에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안보리 활동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해결책 부재, 위임명령 우선순위, 복합적인 위협 등으로 인해 평화유지요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임무수행 간 사상자 발생은 증가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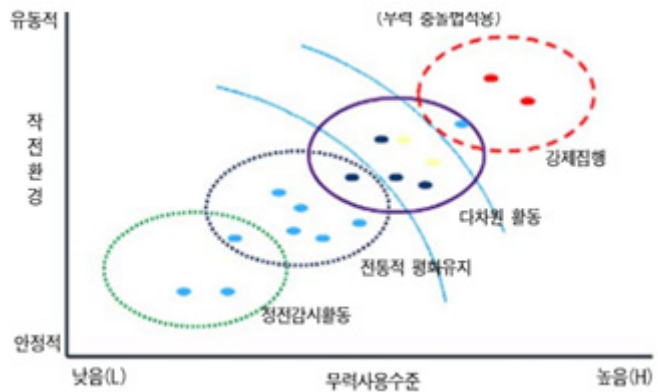
## 2. 다차원 평화유지임무단, 작전환경의 변화

### 가. 다차원 평화유지활동

#### 1) 다원적인 평화구축 과제로 임무확대

분쟁지역의 정전감시활동 위주의 전통적 PKO와 달리 냉전이후 국제분쟁은 국가 간 분쟁보다는 인종, 종교, 자원과 관련된 국내분쟁으로 양상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분쟁 성격변화와 함께 2000년도 이후에 창설된 대부분의 유엔 PKO 임무단은 인권감시, 민간인보호, 무장해제, 선거지원 활동 등 분쟁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건설 과제를 포함하는 다차원 (Multi-Dimensional) 임무단으로 변화하여 왔다. 유엔안보리는 다차원임무단의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위권 차원을 넘어서는 치명적 무력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표1〉 국제 PO의 스펙트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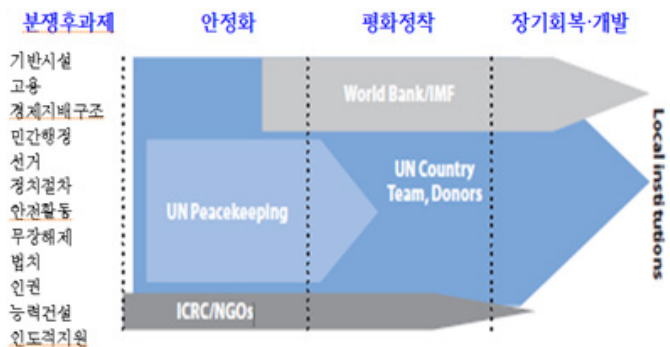


〈출처: Per Arne Five, UN DPKO Briefing, 2008.6.25.〉

#### 2) 강화된 임무수행능력 요구

다차원임무단의 위임명령 수행은 전통적 PKO에 비해 복잡하고 위험을 동반한 위임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제한된 가용자원으로 열악하고 고립된 작전환경에서 행위자간 상호 의존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파병부대의 기동성과 안정된 보급체계, 내구성 있는 장비와 보다 높은 지속력(Self-sustainability)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2〉 다차원임무단 주요과제 · 행위자



#### 3) 다양한 행위자와 통합된 노력

군 병력 위주의 전통적 PKO와는 달리 다차원 임무단에서는 민·군·경이 함께 편성되어 각자 전

문분야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Mandate를 수행하게 되며 성공적 임무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군, 경찰 간 상호 통합된 노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임무단 구성요원 외에도 UN Country Team으로 불리는 UNDP, WHO, UNICEF, FAO, WFP와 함께 ICRC, INGO,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도 성공적 임무달성에는 필수적이다

## 나. 작전환경의 변화

### 1) 평화의 부재와 PKO활동 위험 증가

다차원평화유지임무단의 어려운 작전환경을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켜야 할 평화가 없다!”(There is no peace to keep!)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각 임무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군과 반군간의 충돌,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종족 간 살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정전감시와 모니터링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 평화유지활동과는 달리 최근의 유엔평화활동(UN Peace Operation)은 분쟁예방,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건설을 모두 포괄하는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안보리위임명령(UN Mandate)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민간, 경찰 등 유엔평화활동 요원들은 반군세력의 위협을 포함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광활한 작전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화유지요원에 대한 무력공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이후 3,500명의 평화유지요원이 순직하였고 이중 943명은 무력공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주요 사망원인은 정찰임무나 호송작전간 무장세력의 소총과 차량탑재 급조폭발물(VBIED) 및 급조폭발물(IED), RPG, 지뢰, 박격포 공격 순이다.

2) UN은 작전환경 변화와 과거 PKO 활동 과오와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유지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2000년에 브라히미 보고서, 2015년 HIPPO 보고서, 2018년 CRUZ 보고서를 발간하여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임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여왔다. 한편, 2017.1월 구테흐스 신임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 제한된 자원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들이 동참을 요구하는 Action for Peace(A4P) 이니셔티브를 제기하였다. 한편으로는 유엔 본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유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현장위주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 III. 한국군 UN PKO 참여 성과와 한계

### 1. 대한민국 해외파병과 UN PKO 참여

#### 가.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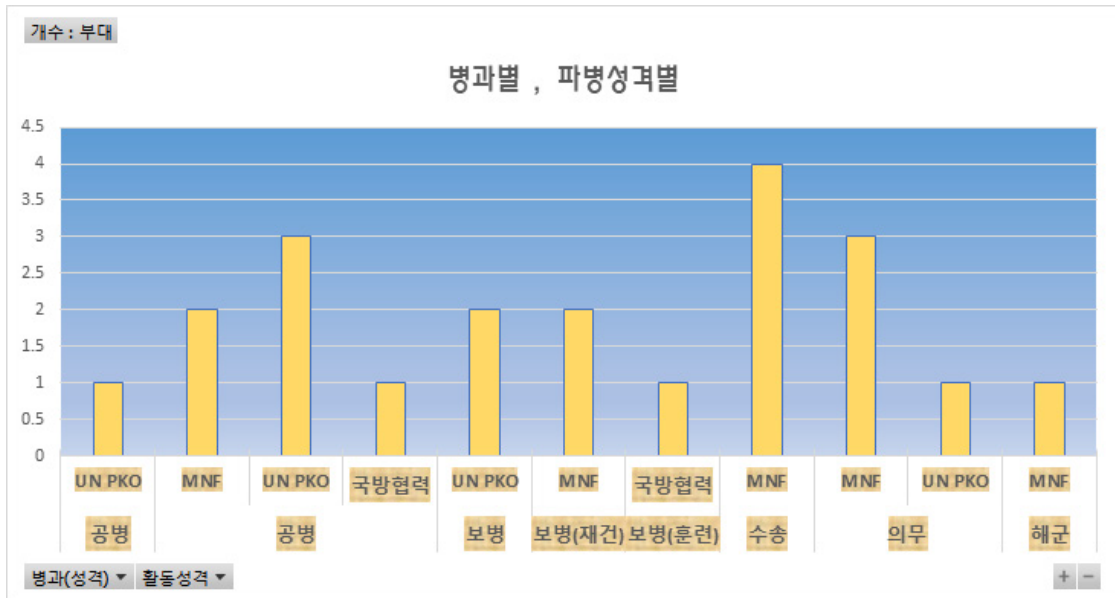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와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 동의안에 따라 우리 국군은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해외파병은 1991년 걸프전 이후 현재까지 총 29개국에 54,720명을 파병(부대단위: 21개국 53,706명, 개인파병: 29개국 1,014명) 하였다. 파병부대 성격별로 다국적군(MNF)활동에 12개 지역 34,498명, UN PKO에 7개 임무단 17,468명, 국방교류협력으로 2개 국가에 2,754명이 참여하였다. 개인파병자 중에서는 UN PKO 임무단 참모, 옵서버 요원의 개인단위 파병은 18개 지역에 650명이 참여하였다.

〈표3〉 대한민국 해외파병부대 현황(1991년~현재)

| 구분 | 부대         | 파병지     | 기간             | 병과(성격) | 활동성격   |
|----|------------|---------|----------------|--------|--------|
| 1  | 국군의료지원단    | SAUDI   | 91.1~4월        | 의무     | MNF    |
| 2  | 공군수송단      | UAE     | 91.1~4월        | 수송     | MNF    |
| 3  | 상륙수부대      | 소말리아    | 93.6~94.3월     | 공병     | UN PKO |
| 4  | 앙골라 PKO    | 앙골라     | 95.10~96.3월    | 공병     | UN PKO |
| 5  | 서부사하라의료지원단 | 서부사하라   | 94.8~96.5월     | 의무     | UN PKO |
| 6  | 동티모르 상륙수   | 동티모르    | 99.9~'03.10    | 보병     | UN PKO |
| 7  | 해성부대       | 디에고가르시아 | '01.12~'03.9월  | 수송     | MNF    |
| 8  | 청마부대       |         | '01.12~'03.12월 | 수송     | MNF    |
| 9  | 동의부대       | 이라크     | '02.2~'07.12월  | 의무     | MNF    |
| 10 | 다산부대       |         | '02.2~'07.12월  | 공병     | MNF    |
| 11 | 서희부대       | 레바논     | '03.4~'04.5월   | 공병     | MNF    |
| 12 | 제마부대       | 아프가니스탄  | '03.4~'04.5월   | 의무     | MNF    |
| 13 | 자이툰부대      |         | '04.5~'08.12월  | 보병(재건) | MNF    |
| 14 | 다이만부대      |         | '08.4~'08.12월  | 수송     | MNF    |
| 15 | 동명부대       | 남수단     | '07.7~현재       | 보병     | UN PKO |
| 16 | 오쉬노부대      | 소말리아해역  | '10.6~'14.6월   | 보병(재건) | MNF    |
| 17 | 아크부대       | 필리핀     | '11.1~현재       | 보병(훈련) | 국방협력   |
| 18 | 단비부대       | 아이티     | '10.2~'12.12월  | 공병     | UN PKO |

| 구분 | 부대    | 파병지    | 기간             | 병과(성격) | 활동성격   |
|----|-------|--------|----------------|--------|--------|
| 19 | 한빛부대  | 남수단    | '13.4~현재       | 공병     | UN PKO |
| 20 | 청해부대  | 소말리아해역 | '09.4~현재       | 해군     | MNF    |
| 21 | 아라우부대 | 필리핀    | '13.12~'14.12월 | 공병     | 국방협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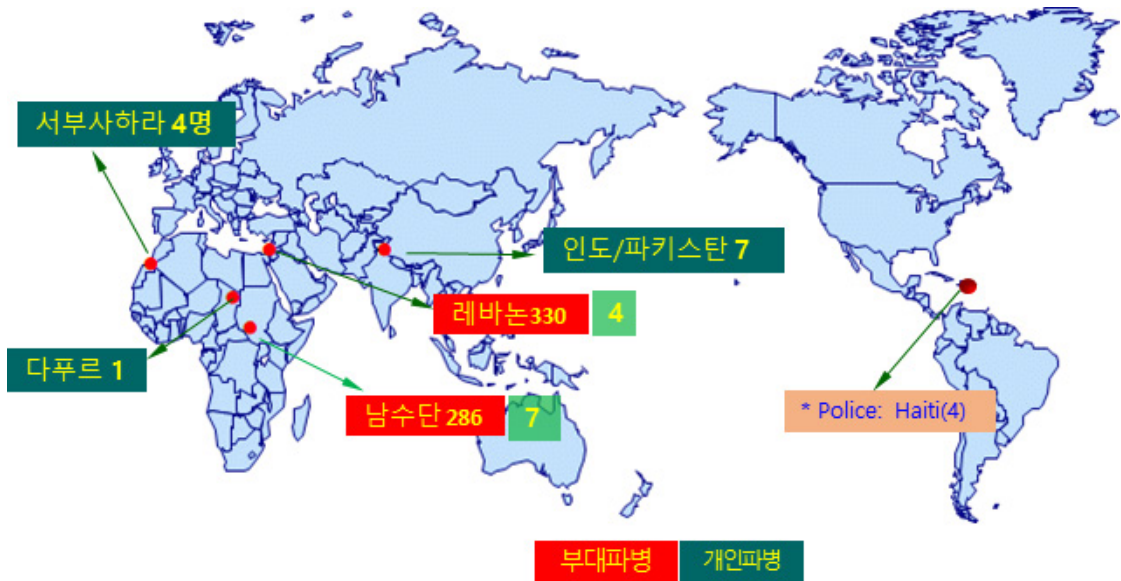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지난 28년간 해외에 파병한 21개 부대의 병과별로 보면 공병부대가 7개로 가장 많고 보병부대 5개, 수송, 의무가 각 4개 지역에 파병되었다.

#### 나. 한국군 유엔 PKO 참여

대한민국의 UN PKO 활동은 2019.7월 말 현재 6개 임무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포함 627명이 참가하고 있다. UN PKO에 참여하고 있는 121개 국가 중에서 참가인원 수(군,경찰)에서는 35위이다.

UN PKO에 참여한 부대의 병과로는 4개 임무단이 공병부대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부대단위로 참여한 UN PKO 7개 임무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도 건설공병 부대인 한빛 부대가 남수단 UNMISS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1〉 한국군 참여 PKO 임무단(2019.10월 현재)

아래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9.7월말 유엔보고서에 나타난 병력(군부대·개인파병·경찰) 기여도 1위 국가는 에티오피아 7,060명, 2위는 르완다로 6,520명이다. UN 회원국 중에서 1,000명 이상 파병하는 나라가 21개국에 달하지만, UN에서 승인한 임무단 병력과 실제 파병 병력수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여전히 유엔회원국들의 추가적인 파병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남수단의 경우에도 군부대병력 인가 17,000명에 대비 2019.7월말 현재 보직인원은 14,282명으로 인가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표4〉 UN 파병 병력(부대·개인파병자·경찰, 2019. 7.31 기준)

| 순위 | 국가         | 남성    | 여성  | 총계    |
|----|------------|-------|-----|-------|
| 1  | Ethiopia   | 6,426 | 634 | 7,060 |
| 2  | Rwanda     | 6,092 | 428 | 6,520 |
| 3  | Bangladesh | 6,188 | 243 | 6,431 |
| 4  | India      | 6,097 | 81  | 6,178 |
| 5  | Nepal      | 5,418 | 256 | 5,674 |
| 6  | Pakistan   | 5,002 | 60  | 5,062 |
| 7  | Egypt      | 3,163 | 27  | 3,190 |
| 8  | Indonesia  | 2,790 | 126 | 2,911 |

| 순위 | 국가           | 남성    | 여성  | 총계    |
|----|--------------|-------|-----|-------|
| 9  | Ghana        | 2,381 | 397 | 2,778 |
| 10 | Senegal      | 2,496 | 155 | 2,651 |
| 11 | China        | 2,442 | 79  | 2,521 |
| 12 | Tanzania     | 2,119 | 192 | 2,311 |
| 13 | Morocco      | 2,101 | 35  | 2,136 |
| 14 | Burkina Faso | 1,975 | 112 | 2,087 |
| 15 | Chad         | 1,435 | 29  | 1,464 |
| 16 | Togo         | 1,343 | 73  | 1,416 |
| 17 | South Africa | 1,000 | 173 | 1,173 |
| 17 | Cameroon     | 999   | 102 | 1,101 |
| 19 | Italy        | 1,044 | 43  | 1,087 |
| 20 | Zambia       | 890   | 140 | 1,030 |
| 21 | Niger        | 952   | 53  | 1,005 |
| 35 | 대한민국         | 590   | 37  | 627   |

본고에서 깊이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한국군의 적정파병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 근거로 OECD 회원국이나 UN 재정부담률 상위권 국가의 보유 총병력대비 파병 병력수를 감안한 파병 부담률(%)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이태리는 1,087명을 파병하고 있고 총병력 대비 파병부담률은 0.47%로 가장 높다. UN 재정 부담률 상위권 국가의 PKO파병 규모는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랑스는 743명, 영국 570명, 독일 528명으로 서구 국가들은 군 조직 예산유지를 위해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 재정부담률 상위 국가의 평균 파병병력 수는 602명으로 평균 파병 부담률 0.24%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감안 시 우리나라의 총병력 대비 파병 부담률 0.09%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5> UN 재정부담률 상위권 국가의 PKO파병 규모(2019. 7. 31 기준)

| 순위 | 나라 | UN 재정부담 비율(%) | PKO 파병규모 | PKO파병순위 | 총병력 (파병률%)        |
|----|----|---------------|----------|---------|-------------------|
| 1위 | 미국 | 22.000        | 34       | 82      | 1,473,900 (0.003) |
| 2위 | 중국 | 12.005        | 2521     | 11      | 2,285,000 (0.1)   |
| 3위 | 일본 | 8.564         | 4        | 111     | 239,000 (0.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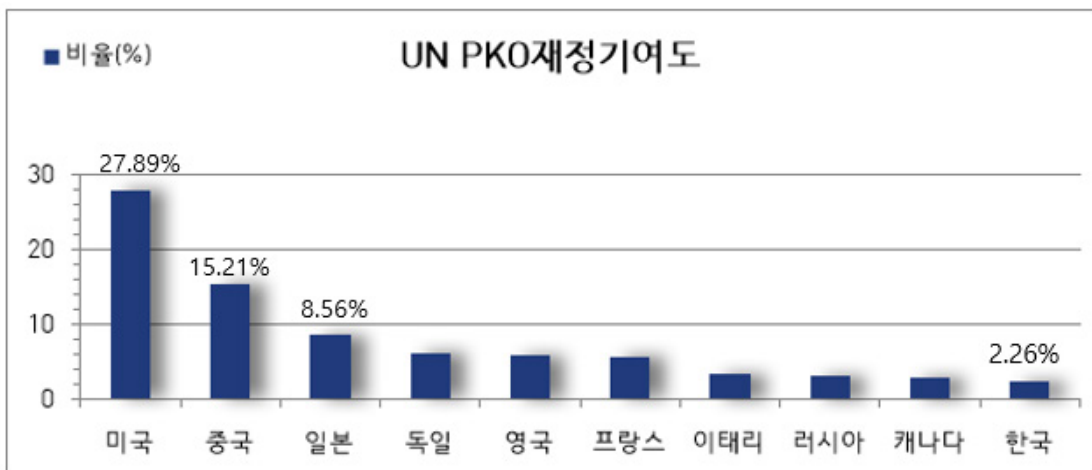
|     |      |       |       |    |           |         |
|-----|------|-------|-------|----|-----------|---------|
| 4위  | 독일   | 6.090 | 528   | 38 | 284,500   | (0.3)   |
| 5위  | 영국   | 4.567 | 570   | 37 | 240,400   | (0.4)   |
| 6위  | 프랑스  | 4.427 | 743   | 30 | 259,050   | (0.4)   |
| 7위  | 이탈리아 | 3.307 | 1,087 | 19 | 230,350   | (0.47)  |
| 8위  | 브라질  | 2.948 | 291   | 47 | 371,000   | (0.7)   |
| 9위  | 캐나다  | 2.734 | 150   | 63 | 63,000    | (0.2)   |
| 10위 | 러시아  | 2.405 | 75    | 71 | 1,200,000 | (0.006) |
| 11위 | 대한민국 | 2.267 | 627   | 35 | 650,000   | (0.09)  |

평화유지활동의 추가적 수요 전망으로는 민족분규 등으로 인한 잠재적 내전 발생 고위험국가(High Alert)군에 예멘 등 9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위험국가(Alert)군에 22개국이 포함되어 잠재적 분쟁 발생 국가군에 총 31개국이 포함된다. (자료 : Fragile State Index Annual Report, 2019)

#### 다. 한국의 UN PKO 재정기여(2018. 7.1.~2019. 6.30. 기준)

한국은 193개 재정지원국 중에서 10위로 전체 UN PKO 예산의 2.26%에 해당하는 재정기여를 하고 있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기여는 미국이 1위로서 27.89%, 2위 중국은 15.21%, 3위 일본은 8.56% 이다

<표6> UN PKO 재정기여도, 유엔총회보고서(A/73/350/Add.1)



## 2. 한국군 PKO 활동 성과와 한계

### 가. 해외파병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UN PKO 파병이 가지는 의미와 기대효과로는 △ 인류애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공동의 안보책임을 지는 것이며, △아직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정치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분쟁 종료 후에는 임무지역에 대한 재건지원 및 후속 경제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실익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국적 연합작전 경험 및 평화재건작전을 경험하고, △우발적 상황 발생 시에는 해외 국민과 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나. 한국군 UN PKO 파병성과

- 1)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난 26년간 최정예 선발 장병으로 구성된 해외파병부대를 편성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PKO 활동을 통해 현지 임무단과 유엔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격 상승에 기여를 하였으며 UN PKO를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2) 군사적 측면에서는 분쟁상황 하에서의 실전적 경험과 다국적 연합작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해외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장비 운용 및 유지 능력을 갖추는 등 군사적 안보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는 파병기간 동안 전투손실을 최소화하여 해외파병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차단하고 해외파병 활동에 대하여 국민 여론으로부터도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 3)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민군작전 활동을 통해 유엔 임무단 활동 전반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도 거두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군은 자체 예산으로 주둔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직업학교 운용, 의료지원, 태권도교실 운용, 학교시설 보수 등 주민들의 삶을 개선, 향상 시키고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통하여 인권과 평화애호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한류를 전파하였다.

## 다. 한국군 UN PKO 활동 한계

### 1) 파병임무와 작전지역의 제한성

대한민국은 PKO 참여시에 장병의 안전에 민감하여 위험한 임무단을 회피 하는 경향이 있고 임무단에 파병을 하더라도 분쟁해결의 핵심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을 찾는 소극적·수동적인 파병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파병결정이 지연되고 파병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파병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해외파병 최장 소요기간으로 남수단 UNMISS 한빛부대의 경우 613일, 레바논 UNIFIL 동명부대의 경우 343일이 소요되었다. 유엔은 인도적지원 등 긴급한 지원을 위해서 PKO군이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속한 파병을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파병부대 선정 면에서도 전투병과보다는 가능하면 전투(근무)지원 병과(공병, 의무, 수송 등) 위주로 파병을 해왔다.

2)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보유대비 병력기여 부담률과 기술적인 기여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재정분담률 상위권 국가의 평균 부담률인 0.24%에 비하여 한국은 0.09%로써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로봇이나 무인기 등 첨단장비 운용 분야에서도 IT 강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 임무단의 핵심 위임명령(Mandate) 기여도 측면에서도 핵심적 위임명령인 지역평화와 안전유지, 민간인보호, 지뢰제거, DDR(무장해제, 동원해제, 통합) 등에 간접적 지원 효과를 제외하고는 효과성 가시성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군은 주로, 공병부대, 의무부대 등 전투지원부대가 참여하여 PKO 파병 초기부터 성과를 거두어온 도로건설 및 보수유지, 동맹군기지건설 등 재건작전과 민군작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임무단지역의 주민들로부터 UN 군의 활동이 지지를 받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임무단의 핵심 임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또한 민군작전활동의 지속성의 문제와 함께 UNHCR, WHO UNICEF 등 다른 UN 전문기구들과 업무영역 침해라는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4) 오늘날의 다차원 PKO 활동은 군 위주에서 경찰 및 민간부분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우리는 군 위주로 참여해 왔다. 우리의 평화유지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 경찰, 민간전문가, 개발 관련 기구와의 협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IV. 유엔 PKO 軍 임무수행 능력 소요

### 1. A4P에 나타난 UN PKO 활동 방향과 軍 요구 능력

가. A4P는 공여국의 행동과 모든 평화유지활동 분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driver)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핵심 어젠다이다. 2017.1월에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평화유지활동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동참하는 공동실행(Collective Action)을 원동력으로 2018. 8월에 A4P 공동공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4P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성공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요소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위임명령에 집중하고 PKO 활동을 보다 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한층 강화된 훈련과 장비를 갖춘 평화유지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A4P 공동공약선언은 2019. 9월 현재까지 152개 국가가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선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멤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선언 이행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공허한 슬로건으로 그칠 수도 있다. A4P 공동공약선언은 8개 분야 4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향후 평화유지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A4P 공동공약선언

- 1) 공동공약선언 8개 분야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 △여성, 평화·안전 의제 이행 △보호 분야 강화 △평화유지요원의 안전보장 개선 △효과적인 임무수행과 책임성 지원 △지속적 평화에 기여 △파트너십 증대 △행동규범 준수 강화이다.
- 2) A4P에 나타난 유엔평화유지군 요구능력.

1. Mandate에 초점을 둔 임무수행
2. 여성인력 참여 확대(W,P&S)
3. 임무단별 맞춤형 민간인 보호
4. 높은 수준의 임무수행 능력  
- Language Skill, Caveats 제한
5. 지속가능한 평화유지활동
6. 행동규범 강화

- Mandate에 초점을 둔 임무수행.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위임명령과업(Mandate)에 초점을 둔 임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적정자원에 맞추어 분명하고 집중적, 순차적, 우선순위, 달성 가능한 위임명령을 이행하고 위임명령과 자원 간 응집성을 강화 한다.



- 여성인력 참여 확대(W,P&S).

평화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여성인력참여 확대를 위한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이행을 한다.

- 임무단별 맞춤형 민간인 보호

임무단별 상황에 적합한 민간인 보호방안 강구와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하여 유엔헌장과 위임명령, 국제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높은 수준의 임무수행 능력

높은 수준의 임무수행 능력 보장과 리더십을 포함한 모든 평화유지 활동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유엔본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현장 지원체계 정립, 언어소통 능력, 부대창설 절차, 장비의 수행능력과 지속성, 파병전 훈련강화, 위임명령 수행에 방해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제한 사항(Caveats)에 대한 명확,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 발전시키는 것이다.

- 지속가능한 평화유지활동

평화유지활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 하는 정도를 높이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화건설(Peace-building)을 포함하는 다차원평화활동을 통한 주둔국의 Ownership과 역량강화를 포함한다.

- 행동규범 강화

평화유지활동과 참여 인원의 행동규범 강화로써 성폭력과 착취(SEA) 관련 무관용 원칙, 인권보호 정책(UN Human Rights Due Diligence Policy) 준수, 위임명령과업 수행 시에 책임 있는 환경보호 대책을 포함한다.

## 2. UN PKO군 요구능력 보고서

가. 2018. 8월 A4P 이니셔티브 이후 2019년 3월에는 ‘유엔평화유지 장관급회의’가 열렸고 130여 고위급 대표단 중에는 60개의 장관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의에서 45개 국가가 신속전개군, 훈련 및 능력강화 지원, 여성평화유지요원의 훈련과 전개를 포함한 특별능력(Specialized capability)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후 UN DPO는 2019. 5월에 병력공여국가(T/PCC)와의 소통을 위해 “현재 및 미래 평화유지군 · 경찰 요구능력에 관한 보고서”(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 Peacekeeping)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평화유지준비시스템(PCRS) 상에는 여러 부대들이 등재되어 있지만 특수하고 고도의

수행능력(Specialized and high-performing Capabilities)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공병, 항공 등 중요한 지원부대(Critical Enablers)와 신속전개 능력, 프랑수어가 가능한 부대 그리고 여성평화유지요원이 필요하며 병력공여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나. 보고서에 나타난 UN PKO 군·경찰 소요 능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민하고 임무단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부대
  - 신속전개부대, 군 예비중대, 특수부대, FPU(경찰군), QRF(신속대응군), 공격헬기
2. 평화유지 정보능력(정보감시/정찰부대, 정보참모 요원)
3. 다목적 공병, 수송, 통신, 항공, 의무부대 등
4. 부대방호 역량
  - EOD/IED 처리, 전투공병, IED탐지 시스템, 지뢰방호차량
5. 생존성 향상을 위한 첨단 장비 등(UAVs, 원격탐지 경보시스템)
6. 불어사용 가능한 군부대 및 경찰
7. 여성 평화유지활동 요원
8. 우수한 지휘관, 유능한 참모장교

• 임무단의 기민성과 융통성(Agile and flexibility)을 지원하는 부대로 신속전개부대(Rapid Deployable Units), 군 예비부대(Force Reserve Companies), 특수부대(Special Forces), 경찰군(Formed Police Units), 신속대응군(Quick Reaction Forces), 공격헬기(Attack Helicopters)이다. 인가병력이 축소되고 넓은 작전지역을 통제해야 하는 작전환경에서 임무단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부대는 매우 유용하다. 이런 능력의 부대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 제공과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쉽게 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MONUSCO와 MINUSMA에는 이런 형태의 부대가 전개되어 있다.

#### • 평화유지 정보 능력

유엔평화유지 임무가 복합적인 임무로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서 정보주도(Intelligence-led) 작전이 보다 중요하게 되고 있다. 군과 경찰의 효과적인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협조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 작전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감시 및 정찰부대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특수요원과 장비가 필요하며, 또한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정보장교가 U2 참모부와 통합정보분석센터(JMAC)에 배치되면 좋을 것이다.

• 효과적인 지원부대(Enabling Units- 다목적 공병, 수송, 통신, 항공 및 의무부대)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능력은 제한된 수송 인프라의 제한과 현지 가용자원의 부족을 감안 시에 매우 결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공병능력과 수송과 항공능력은 지금까지 임무단의 기능에 중추적인 역할

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과업소요로 인해서 임무단은 보병부대나 경찰군(FPU)을 지원부대(Enabling Units) 보호를 위해 할당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지원부대들은 자체적 방호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부대방호 최우선

부대방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EOD/IED처리 능력과 무기정보팀, 전투공병과 전투호송 중대, 발전된 IED탐지능력시스템(지상침투 레이더), 전자식차단 수단, 경보시스템, 지뢰방호차량, 기지 C-3시스템과 통합된 간접화기 탐지 및 경보시스템과 숙소 방호수단 등이다.

- 기술

변화하는 작전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안전과 효과성을 위해서 유엔과 회원국들은 생존성 향상과 부대방호를 위한 장비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UAVs와 탐지 및 경보시스템, 위성이미지, 시각감시 장비 및 원격센서 등이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 리더십

군사령관이나 부사령관 또는 경찰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고위급 리더는 위임명령 수행 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관련 작전경험, 윤리적 측면에서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지휘관들은 다차원 임무단에서 직면하게 될 작전적, 정치적 지형의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음자세(Mind set)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주둔국가(Host nation)가 임무단 활동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Consent)를 제공하지 않거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UNMISS 섹터지휘관 선발 자격요건은 UN PKO 경험 및 작전분야 경험 선호, 현역준장(나이 55세 이하), 리더십, 유창한 회화 능력 및 쓰기 능력, 건전한 판단력 및 의사결정 기술 등이다. 특히 동일 조건이라면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 V. 한국 유엔외교와 한국군 기여 방향

### 1.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

유엔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는 2018.1.19일 독립패널을 출범시키고 한국외교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2018.7.6.일에 ‘한국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유엔외교 3.0’ 27개 제언 중에는 UN PKO 병력공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을 이용한 ‘틈새의제’ 발굴. 셋째, 국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진출 센터’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중·장기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전략 수립 분야에서의 관점은 UN PKO는 평화·안보분야에서 유엔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핵심활동으로, PKO 참여는 외교적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은 1993년 이래 PKO에 대한 병력기여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엔회원 193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재정기여를 하고 있다. 중·장기 전략수립 시는 PKO 활동의 중요성과 한국의 병력 및 재정기여 규모를 감안,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략 수립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전략은 PKO 참여 전략적 목표에 대한 정부 내 합의 도출을 중심으로, 경찰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인력 다원화, PKO 고위직 진출확대 등 정책결정 참여강화, PKO센터의 확대 개편과 연구·훈련 역량의 고도화 등 PKO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이한 내용으로는 독립패널은 남북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2018.4.27.)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면 DMZ 내에 ‘국제평화유지활동센터(PKO Center)’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2. UN PKO 선진화 로드맵

이어서 2019.2월 한국 외교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안보리 진출(2024~25 임기)에 대비하여 유엔 PKO 분야에서 우리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선진화 로드맵의 핵심내용은 유엔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여를 다변화하고 신기술과 PKO 등 새로운 이슈를 선도하며, 2020년 PKO 장관회의 유치로 통해 우리 PKO의 효과성 및 가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UN PKO 선진화 로드맵의 추진방향으로 △이슈주도-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질 이슈에서 정책비전 및 성과도출 △병력공여 선진화 - 주요 병력공여국 지위 유지 및 병력공여 선진화(병력규모 유지,

핵심임무 참여, 교육·훈련 강화, 경찰확대), △기여 다변화 -기술기여, 틈새기여, 훈련기여 등 가시적·전략적 기여확대 △여성참여확대 - 국내 및 국제사회 여성의 PKO 참여 진출 확대 지원 △한 국인 진출 지원 - 우리 국민의 PKO 중·고위직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5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 VI. 병력공여 발전 방향(제언)

앞서 논의된 A4P 군 능력소요, UN DPO 군 요구능력 보고서와, 한국 외교부의 '중·장기 유엔평화 유지활동 참여전략'에서 제시된 3가지 제언, 'UN PKO 선진화 로드맵'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UN PKO 병력공여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UN PKO는 지속적 평화와 분쟁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평화건설( Peace-building) 활동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임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UN PKO참여와 병력 공여 방식도 우리의 안보역량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감안하여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 전략적 소통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고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임무 단의 핵심과업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제 언한다.

### 1. PKO 참여정책 패러다임 전환

#### 가. 인식전환

우선, UN PKO 참여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창출하고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 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즉 미래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유엔이 필요로 하는 PKO 분야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인식(Mind set)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정전감시위주의 전통적 평화유지활동과 달리 현대의 유엔평화활동은 다원적 이고(Multi-dimensional), 통합적(민·관·군)이며, 무장해제, 민간인보호 등 복합적이며 위험을 수 반한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보호등 주요한 위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자위권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무력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파병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나. 군 위주에서 경찰, 민간전문가의 PKO 참여 확대

다차원평화활동 복합적 위임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과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경찰 요원으로 한국정부는 2018.3월부터 Haiti 임무단 MINUJUSTH에 4명을 파견하고 있다. 유엔경찰에는 개별경찰(IPO: Individual Police Officer)와 경찰 군(FPU: Formed Police Unit)이 있다. 경찰병력 파병확대가 필요하며 경찰파병 확대는 현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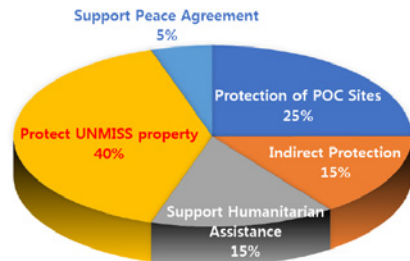
중인 우리 군과 함께 활동 시에 다양한 정보 공유와 가시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민군활동(CIMIC분야)으로 직업학교 운용, 한빛 농장운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도적지원이나 농업분야 기술 등을 현지에 전수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파병부대와 활동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면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이용하여 민군활동의 효과도 증대하고 군 병력이 민군활동에 투입됨으로써 생기는 인도적 지원 기관과의 마찰 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외교부산하의 개발원조 기관들인 코이카, 코피아 등의 기관의 참여와 군부대 민군작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만하다. 나아가서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파병국가와 외교적 관계도 구축하여 분쟁해소 이후 주요 자원획득과 한국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3D(Defense, Diplomats, Development) 접근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중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 2. 임무단 핵심적 위임명령(Mandate)에 기여하는 활동

가. 다차원 임무단의 핵심적 임무는 지역평화와 안정유지, 민간인 보호, 지뢰제거, 무장해제, 인도적 지원 활동 지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인도적지원기구나 NGOs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실향민(IDP)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인 보호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파병부대도 임무단 위임명령(Mandate)에 충실하고 임무단의 작전성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대의 안전을 고려하되 핵심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 우리 파병부대를 위치하고, 부대운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제한사항(Caveats)을 두지 말고 군사령관의 작전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다차원임무단인 남수단 UNMISS의 경우 2018년도 기준 군 병력활동 비율 분석 자료에 의하면 군 병력의 약 40%는 부대방호 등 자산보호에 운용되고 다음으로 민간인보호(POC)를 위한 활동에 운용된다. UNDP, UNICEF, WFP, WHO, UNHCR 등 유엔 기관의 인도적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작전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 한빛 부대활동인 도로건설/유지는 인도적 지원활동의 일부분이다. 주요 자산보호와 민간인 보호활동은



대부분 보병대대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동명부대의 경우에도 UNIFIL의 핵심임무라 할 수 있는 블루라인 관련 임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유엔군 작전지역으로의 불법무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문소운용과 지역정찰, 민군작전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 나. 파병부대의 다변화 – 보병부대, 항공, 정보수집 부대

파병부대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파병 부대 선정 시에 지금까지 해오던 공병, 의무 등 전투지원부대 위주에서 벗어나 보병부대, 항공, 정보 수집부대 등 파병부대의 다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엔보병부대의 경우 워리어 플랫폼 기반의 개인전투체계, 기동장비방호능력, 정찰/경계지원 로봇, 정보수집/감시시스템, 시 기반 무인기 운용의 Test Bed 역할도 가능하다. 보병부대의 평화유지 활동참여는 공병, 의무부대 등 전투지원 부대의 제한 사항을 넘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실전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UN 보병부대는 전통적 군사작전의 공격 방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임무단 별로 상이 하지만 보병부대 주요과업으로는 유엔작전기지 경계와 IDP Camp 보호, 지역정찰 활동, 검문소 운용 등 일반적으로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로하고 있으며, 850여명의 병력을 가지며 작전 책임지역을 가고 정세파악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현지인들과의 접촉 등 임무단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보병부대 전개 시에 장점으로는 파병의 가시성 효과성 증대, 저강도 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경험 요소는 향후 군사령관 등 임무단 고위직 진출 시 유리한 경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병부대와 보병부대를 동시 파병 시에는 유사시 공병부대 방호력 증진과 안전성 증대에도 기여한다. 2013년 남수단 사태 악화시 한빛 부대의 안전문제로 인해 일본 공병부대로부터 전투 예비탄을 빌려오는 사태로 한빛 부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남수단 임무단에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은 보병대대와 공병부대를 동시에 파병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이후 장차 한국군이 분쟁지역 새로 창설되는 임무단에 보병부대를 파병하게 되면 첨단기동부대로써 IED공격에도 방호되는 장갑화 장비와 UAVs, 탐지레이더, C4체계, 4차산업혁명 명의 신기술 등 첨단 장비와 기술을 운용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병부대와는 차별화된 유엔보병부대의 혁신적 운용모델 제시하는등 선도적 역할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보병부대 수행임무는 다음과 같이 주요과제 8개, 지원과업 4개, 기타 4개 과제 등 총 16개 과제로 요약된다.

• 주요과제

1.정찰(Patrolling) 2.관측소(Observation Post) 3.검문소운영(Checkpoint) 4. 방문지원 및 관여 (Outreach and Engagement) 5.정보수집 및 분석(Situational Awareness) 6.차단/탐색(Cordon and Search) 7.호송 및 호위(Convoy and Escort) 8.작전기지운영(Operation Base)

• 지원과제

9.무장해제·동원해제(Disarmament and Demobilization) 10.주요기반시설 및 자산보호 (Critical Infrastructure and Assets Protection) 11. 군중통제(Crowd Management) 12.억류 (Detention)

• 기타과제

13.완충지대(Buffer Zone) 14.합동작전(Joint Operations) 15.증원 및 교대(Reinforce/Relief) 16.구출 및 후송(Extract/Evacuate)

보병부대(전투병) 파병은 그동안 국회파병동의 논의 시에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내정치적 상황 등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국민정서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보병부대 파병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다국적군과 달리 유엔보병은 전투부대가 아니며, 전통적인 전투처럼 공격작전,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유엔에는 적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IED, UXO, 무장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있을 뿐이다. 핵심적 우려사항인 안전문제 우려불식을 위해서는 정치권, 국민들과의 전략적 소통(SC)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적 여론관리를 통하여 국민적지지 받아야 한다. 여론관리 층의 파병현장 방문, 관련영화 제작, 드라마 기획지원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유엔 보병부대 파병이 다국적군의 전투부대파병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하고 보병부대의 안전보장은 방호장비와 철저한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병부대가 200여 km 원거리 작전을 하는 것이 보병부대의 장갑화 장비로 정찰 활동하는 것 보다 더 위험 할 수도 있다. 주요 분쟁지역의 치안 불안정은 어떤 형태의 부대가 어느 임무를 수행하던 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단 대치국인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희생이 수반되는 도움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안보기여 활동간 우리의 희생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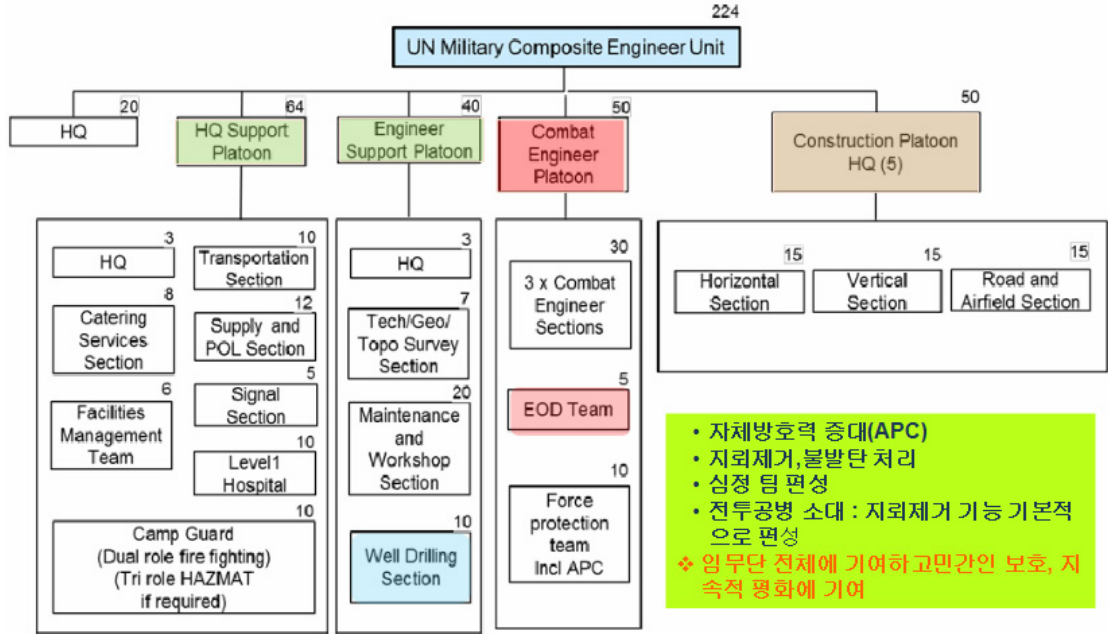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보병부대 파병은 2004. 8월에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다국적군으로 참여하였고, 유엔평화유지군으로는 1999. 10월 파병된 동티모르 상륙수부대가 최초 유엔 보병부대(특수전)이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병결정은 당시 국가 리더십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례적으로 18일이라는 단기간에 파병한 사례이다. 2007. 7월부터 현재까지 동명부대(특수전)가 성공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UNIFIL 특성상 다차원임무단의 유엔보병부대 활동과는 다소 달리 지역 경찰, 검문소 운용 위주의 단순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다. 다기능 공병부대 편성

대한민국이 최초 소말리아에 공병부대(상륙수)를 파병한 이후 UN PKO에 참여한 한국군 공병은 모두 건설공병으로서 도로건설·보수유지와 동맹군 기지건설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병이 가지는 다양한 능력과 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 공병부대의 역량과 우수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언론 광고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부분의 경우 암반지하수 등 식음용 물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수십 km를 걸어서 물을 길러야 하는 실정이다.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은 하천 등에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고 이로 인하여 콜레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게 된다. 실제로 많은 인원이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군 공병의 가지고 있는 심정개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신설 임무단에 공병부대 파병시 심정 팀을 포함하도록 부대소요에 근거하여 적극 검토하고 유엔과도 협조가 필요하다. 심정개발은 한국군이 수행하는 민군활동의 주요 사업과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엔의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남수단의 경우 55%의 국민만이 정상적 식수를 얻을 수 있고 대부분 오염된 식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한 개의 심정개발에 약 \$15,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남수단의 경우 평균 약 90여m에 지하 암반에서 암반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식수가 모자라는 건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심정개발 기능과 함께 임무수행 간 부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IED/EOD 팀, 지뢰 제거 능력 등을 갖추어서 다기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된 공병부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임무수행은 실전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군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표7〉 유엔 표준 복합 공병부대 모델



### 3. 신속한 파병체제 및 파병전 교육훈련

#### 가. 상비부대 편성 및 교육

신속한 파병을 위해서는 상비부대 파병 전 교육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파병준비에 1~2개월이 소요되는 파병 전 교육을 상비부대를 대상으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추가적인 파병 요청이 있을시 최소 90일 이내에는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상비부대 중 별도지정부대(공병대대, 특공대대, 항공중대, 기보중대, 헌병중대, 폭발물처리반)의 경우 실질적인 인력과 교육훈련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파병부대의 교대부대 모체부대인 공병대대의 경우에는 신규파병시나 부대교대시에 최소한의 인원만 추가로 선발하거나 보완하면 되도록 '유엔표준공병부대' 모델을 기준으로 일반부대와 다른 편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별도지정부대인 공병대대의 경우 기존파병부대의 교대 병력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도 모체부대 요원이 실제 파병부대에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파병선례가 없는 특공대대등 여타 부대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다.

## 나. PKO 전용 모의 훈련장 개발

유엔평화유지임무단 수행임무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파병전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병과차원의 병과 주특기 훈련에 더하여 유엔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육이 파병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대파병 요원뿐만 아니라 개인 파병자(옵서버, 참모요원)들에게 필요한 관측 및 정찰기술, 차량운행 및 정비, 인질사태, 현지인 인터뷰 기술 과제는 성공적인 임무수행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파병전 핵심훈련과목(CPTM : 3개 모듈, 22개 과목)에 대한 이론 교육은 제약이 없으나 야외에서 FTX가 필요한 훈련과제의 경우는 파병지역 여건과 유사한 모형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지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파병자의 경우는 옵서버가 활동하는 팀사이트 막사 모형을 만들어 실제 임무단에서처럼 팀사이트 팀장과 팀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감시/관측, 정찰, 사고조사, 현지지도자 인터뷰 등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 설치가 필요하다. 부대파병 훈련장으로는 기지방어, 작전지역정찰(도보, 차량), 검문소 운용 등 실제 수행임무 과제와 상황을 구현하는 모형훈련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UN PKO 전용 훈련장 마련이 필요하다.

### 4. 개인파병 확대 및 해외파병 인적자원관리 체계화

현재 우리군은 5개 임무단 지역에 23명의 개인파병자를 보내고 있다. 인원이 소수이고 홍보가 잘되지 않고 있지만 부대파병에 못지않게 개인 파병자는 국위 선양과 임무단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인파병자를 유엔에서는 임무단 전문가(Expert on Mission)로 부르는데 옵서버요원과 참모요원, 군사 자문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통상 배치된 임무단 지역에서 1년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소수 인원이지만 파병의 효과 면에서 여파가 큰 개인파병 확대와 개인파병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파병자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참모부 등과 합동작전센터(JOC), 종합정보분석실(JMAC) 등 주요핵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임무단 전반적인 정세와 작전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파병부대의 안전과 임무수행 성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정보, 작전분야의 핵심 참모요원의 직책을 한국군 장교가 차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구사와 유엔평화유지임무에 대한 이해도 등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고 아울러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국방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파병자들의 경우 제2 외국어를 하면 정보 분야 등 중요한 직책을 차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PKO 센터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PKO 센터 파병전 교육과 연계하여 국방어학원과 협조하여 파병자들에게 기본적인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능력 기회를 부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개인파병자가 임무단 전개시에 언어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핵심 직위 보직을 차지 한다면 파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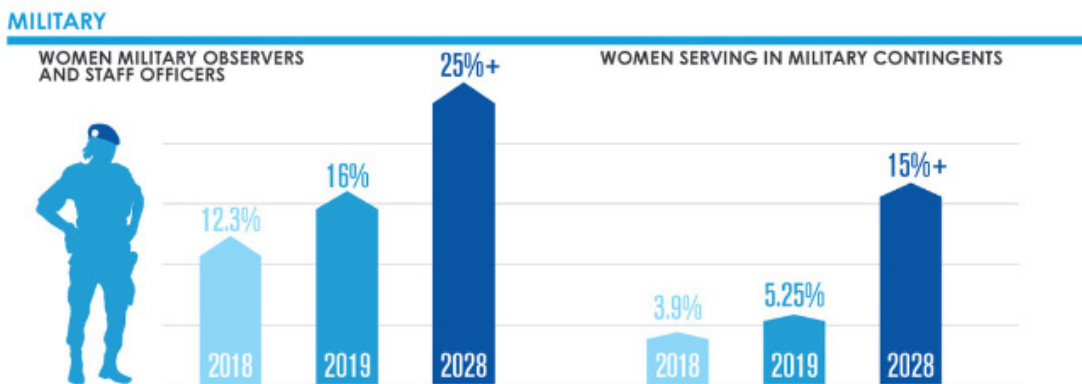
해외파병 인적자원 관리를 체계화하여 해외파병 유경험자 중에서 우수한 자원은 상위계급으로 진출하고 이들이 다시 유엔임무단의 고위급 핵심 참모요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임무단의 대령급 이상의 직위에서는 임무단의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파병부대의 임무부여와 활동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23명의 개인파병자 중에 대령급은 한 명도 없다. 우리나라 장교 중에 한 명의 대령급 직위자라도 해당 임무단에 있다면 파병부대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직책 경험자들은 향후 UN본부의 DPO 고위급 주요직책이나 임무단 군사령관 등 고위직 진출에도 유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한승주 UNFICYP 사무총장 특별대표(96.5-97.4), 최영진 UNOCI 사무총장특별대표(2007-10-2011.8)를 배출하고 안충준(1997년), 황진하(2002년), 김문화(2008년), 최영범(2012년) 등 한국군 장성 4명이 정전감시단장과 임무단 군사령관을 역임한 적이 있으나 이후는 군사령관 등 고위직 진출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은 주요 직위자의 자격요건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다차원임무단의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리더십의 능력과 작전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는 실태이다.

### 5. 여성참여 확대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을 위하여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민간인 보호와 특히 분쟁지역에서의 최대 피해자인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평화유지 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옵서버, 참모요원의 경우 여성 Peacekeeper 비율을 25%이상, 부대의 경우 15%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8〉 유엔 군부대 여성참여 확대 목표(출처: 유엔 DPO Home Page)



우리나라도 여성인력 확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임무단 참모요원이나 옵서버 요원 선발시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부대파병시에도 참모부 요원이나 현지인과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필요한 직위에는 여군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보병대대의 경우는 필30여명의 여군으로 이루어진 팀(FET: Female Engagement Team)이 편성되어 정찰임무 수행시 현지 여성과 관련된 접촉이 필요 할 경우에 대비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유엔보병부대 16개 과업 중 현지주민과 접촉하고 교류(Outreach and Engagement)하는 과제를 주로 수행한다.

### 6. 친환경적 PKO 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간에 주둔국의 동·식물과 천연 자원 등을 포함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최소화 해야 한다. 현장에 전개하여 활동하는 유엔임무단에는 군을 포함하여 약 10만 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임무단이 쏟아 내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오염수, 폐기물은 대단히 많고 적합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오염수로 인해서 콜레라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여 임무단 전체의 신뢰와 성공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 문제는 주둔국의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엔요원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무단 현지에서 공병부대가 주둔지건설과 기지보수 유지 시에 냉난방 전기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적 기술을 적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 민군활동에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포함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유해폐기물처리 방안, 자원재활용 등 환경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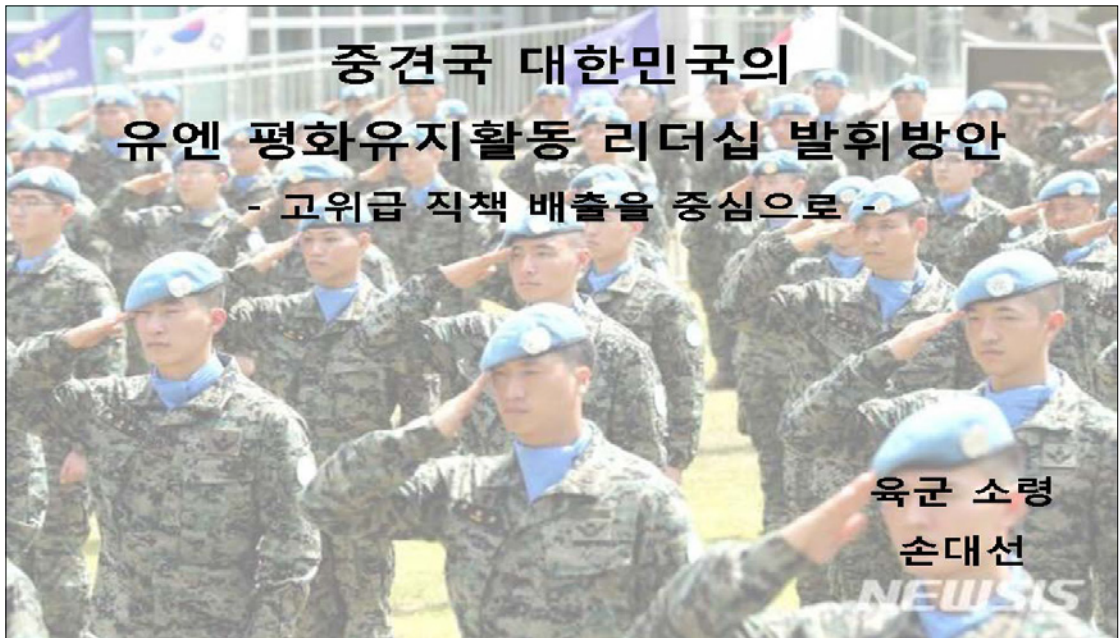
## Ⅶ.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평화유지활동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임무단의 다양한 활동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실전경험을 통해서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이다.

해외파병 참여의 양적·질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 새로운 안보와 국방환경을 전망해 본다면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확대는 우리군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위해서 주요한 전략적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파병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파병장병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전에는 파병규모 확대나 보병부대의 파병 등 적극적인 파병정책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안보상황을 이유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인 재건작전과 민군작전 위주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PKO 참여활동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 한반도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UN PKO 참여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의 의미를 새겨본다. 대한민국은 유엔 PKO를 통해서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순서                        |   |
|---------------------------|---|
| 1. 서                      | 론 |
| 2. 중견국 외교와 UN PKO의 이론적 고찰 |   |
| 3. UN PKO의 주요 리더십 분석      |   |
| 4. 대한민국의 UN PKO 평가와 발전 방안 |   |
| 5. 결                      | 론 |

# 1. 서론

- ◆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
  - Hard Power: 세계 12위의 경제력(GDP기준), 10위의 국방력(군사비)
  - Soft Power: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개최, K-POP 등 한류 열풍
  - ☞ **주변 4대 강국, 남북 대결로 인한 중견국으로서의 지위**
- ◆ **중견국으로서 UN PKO 활성화를 위한 노력**
  - 2009년 'UN PKO 참여에 관한 법률'
  - 2010년 '온 누리 부대' 창설, 'PKO센터' 확대
  - 2014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PKO분과 의장국 임무 수행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 ☞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
- ◆ **UN PKO에 관한 기존연구: 참여확대의 필요성 대부분 인정**
  - ☞ **리더십 발휘(고위직책 선발)를 강조한 연구 부족**

☞ 리더십 부분에서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 수준 분석  
 대한민국 UN PKO 파병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 2. 중견국 외교와 UN PKO의 이론적 고찰

## 중견국의 이론적 관점과 대한민국

- ◆ **기능주의적 측면**: 특화외교 - 공적개발원조,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 ◆ **행태주의적 측면**: 다자주의 · 대화와 타협 - 아 · 태, 글로벌 차원에서 다자체제 가입
- ◆ **위계주의적 측면**: 국력의 수준 - 세계 10위의 군사력과 경제력
- ◆ **규범적 측면**: 도덕적, 평화적 외교활동 - 핵심 공여국,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
- ☞ 4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중견국으로서 모습(국력 + 외교 스타일)

## 중견국 국가 현황

<표 1> 중견국 리스트

| 중견국 구분         | 국 가   |
|----------------|---|
| <b>중추적 중견국</b> |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 필리핀, 호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총 21개국) |
| <b>일반적 중견국</b>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자메이카, 칠레, 알제리, 코트디부아르(총 17개국)                          |
| <b>불만족 중견국</b> | 북한, 베트남, 이란(총 3개국)  |

\* 강대국(9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캐나다, 독일

## 2. 중견국 외교와 UN PKO의 이론적 고찰

###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로서 UN PKO의 중요성

- ◆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 추구
  -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
  - 평화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명분 획득

### UN PKO에서의 리더십 발휘와 필요성

- ◆ 리더십 발휘 = 각 활동 별 고위직책을 다수 배출
  -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SRSG)
  - 군사령관(Force Comander, FC)
  - 감시단장(Chief Military Observer and Head of Mission, CMO)
- ◆ 리더십 발휘의 과정
  - UN 인정, PKO활동에서의 분쟁국+국민들로부터 존경, 세계의 여론
  - UN PKO분야에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규범 만들기(축매-축진-관리)

안보분야 강대국의 정치에 종속적 반응 x, 적극적·창의적 전략

## 3. UN PKO의 주요 리더십 분석

### 사례 선정

<표 2> 현재 진행중인 14개 활동 현황과 SRSG, FC, CMO의 출신 국적

| 순서 | 성격                  | 활동        | 설립일  | 작전지역           | SRSG 출신국 | FC 출신국 | CMO 출신국 |  |
|----|---------------------|-----------|--|----------------|----------|--------|---------|--|
| 1  | 감시                  | UNTSO     | 1948.5   | Middle East    | .        | .      | NOR     |  |
| 2  | 감축                  | UNMOGIP   | 1949.1   | India-Pakistan | .        | .      | URY     |  |
| 3  | 및                   | UNMK      | 1999.6   | Kosovo         | AFG      | .      | .       |  |
| 4  | 경징 활동               | MINUJUSTH | 2017.10  | Haiti          | USA      | .      | .       |  |
| 5  | 민<br>병력<br>위주<br>활동 | UNFICYP   | 1984.3   | Cyprus         | CAN      | AUS    | .       |  |
| 6  |                     | UNDOF     | 1974.8   | Golan          | .        | NPL    | .       |  |
| 7  |                     | UNIFIL    | 1978.3   | Lebanon        | .        | ITA    | .       |  |
| 8  |                     | MINURSO   | 1991.4   | Western Sahara | CAN      | PAK    | .       |  |
| 9  |                     | UNAMID    | 2007.7   | Darfur         | ZAF      | KEN    | .       |  |
| 10 |                     | MONUSCO   | 2010.7   | Congo          | DZA      | BRA    | .       |  |
| 11 |                     | UNISFA    | 2011.8   | Abyei Sudan    | .        | ETH    | .       |  |
| 12 |                     | UNMISS    | 2011.7   | South Sudan    | NZL      | IND    | .       |  |
| 13 |                     | 강대국       | 4명 : 케냐 2명, 아르헨티나, 미국 각 1명                     |                |          | TCD    | SWE     |  |
| 14 |                     | 중추적 중견국   | 5명 : 호주,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각 1명             |                |          |        | SEN     |  |
|    |                     | 일반적 중견국   | 4명 : 노르웨이, 말레이, 뉴질랜드, 스웨덴 각 1명                 |                |          |        |         |  |
|    |                     | 약소국       | 8명 : 세네갈 2명, 우루과이, 네팔, 아프간, 케냐, 에티오피아, 차드 각 1명 |                |          |        |         |  |

### 3. UN PKO의 주요 리더십 분석

#### 국가별 파견 병력 수에 의한 선발

- 6개 활동에서 병력 파병 순위 최소 5위 이내의 국가로부터 고위직책 배출
- 4가지 예외 활동 분석
  - UNFICYP: 강대국 및 중견국 위주 선발, 해당 인사의 개인적 능력 작용
  - MINUSCA: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이 임무수행 중 2014년 UN으로 변경, 아프리카 위주 선발
  - UNAMID, MONUSCO: 아프리카 위주 선발, 해당 인사의 개인적 능력 작용

<표 3> 현재 진행중인 군 병력 위주 활동 10개에 대한 파견병력 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

| 순서 | 활동      | 참여국 수 | 총 활동 인원수(명) | 파견 병력 수에 의한 국가별 순위 |     |     |     |     |
|----|---------|-------|-------------|--------------------|-----|-----|-----|-----|
|    |         |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1  | UNFICYP | 25    | 943         | GBR                | SVK | ARG | CHL | PRY |
| 2  | UNDOF   | 10    | 884         | NPL                | FJI | IND | IRL | GHA |
| 3  | UNIFIL  | 42    | 10,082      | IND                | ITA | NPL | GHA | MYS |
| 4  | MINURSO | 37    | 245         | EGY                | BGD | RUS | CHN | PAK |
| 5  | UNAMID  | 43    | 15,854      | RWA                | PAK | ETH | TZA | CHN |
| 6  | MONUSCO | 54    | 16,215      | PAK                | IND | BGD | MAR | ZAF |
| 7  | UNISFA  | 32    | 4,791       | ETH                | GHA | LKA | ZWE | BGR |
| 8  | UNMISS  | 73    | 14,282      | HWA                | IND | ETH | NPL | BGD |
| 9  | MINUSMA | 59    | 13,289      | BFA                | TCO | BGD | SEN | EGY |
| 10 | MINUSCA | 58    | 1,050       | RWA                | PAK | ZAF | ZMB | ZA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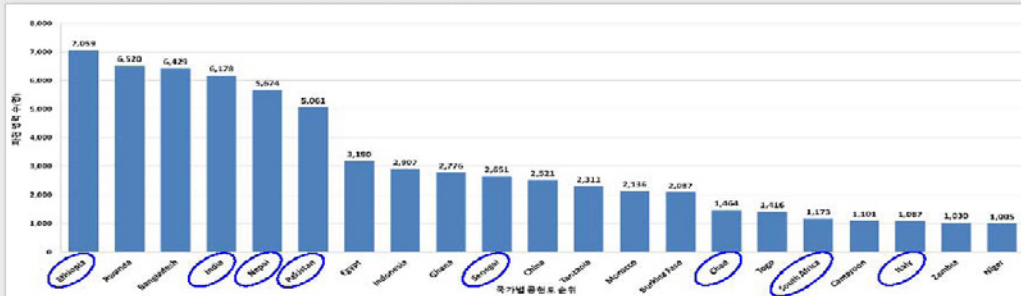
특정 활동에 많은 수의 병력을 파병할수록 고위직책 배출 가능성 증가

### 3. UN PKO의 주요 리더십 분석

#### 국가별 파견 병력 수에 의한 선발(계속)

- 국가별 총 병력 파견 순위 20위 이내 국가 중 8개 국가(9개 자리)에서 고위직책 선발
  - SRSG 7개 자리 중 3개 자리(예외 4개 자리: 캐나다 2개 자리, 뉴질랜드·알제리 각 1개 자리)
  - FC 10개 자리 중 6개 자리(예외 4개 자리: 호주·브라질·스웨덴·케냐 각 1개 자리)
- \* 스웨덴 44위, 브라질 47위, 캐나다 63위, 호주 80위, 뉴질랜드 100위(CF 대한민국 36위)

<그림 2> 국가별 병력 파견 수에 따른 국가 공헌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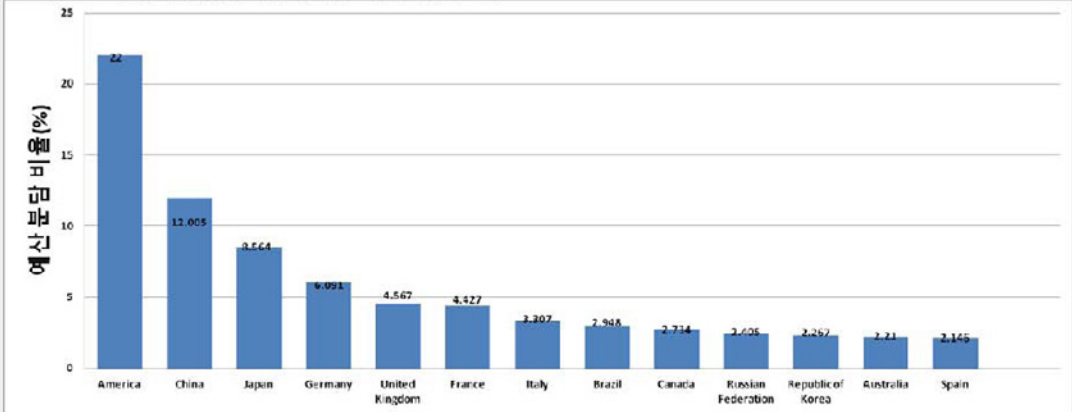


강대국, 중견국 중 인도 4위, 파키스탄 6위, 남아공 17위, 이태리 19위

## 국가별 분담금 부담 순위에 따른 선발

● 국가별 분담금 2%이상 중 13개 국가 중 5개 국가(6개 자리)에서 고위직책 선발(28%)  
- 캐나다 2개 자리, 미국·호주·이태리·브라질 각 1개 자리

<그림 3> 국가별 유엔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 순위



## 개인별 근무 경험에 따른 선발

<표 4> 각 활동 별 현 SRSG, FC, CMO의 과거 UN 관련 경력

| 순서 | 활동      | 지역   | 이름                   | 국적  | 경력  |
|----|---------|------|----------------------|-----|---|
| 1  | UNDO    | OMO  | Kristin Lund         | NOR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in 1986 and the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UNPROFOR), 1992-1993 and 1994-1996.<br>Served as Forc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PKF), 2014-2016.   |
| 2  | UNMOGIP | OMO  | Joshi Bhabha Acharya | IND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Rwanda (UNAMR), 1994-1996,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 (UNAVEM II), 1996-1997, the United Nations Iraq-Kuwait Observation Mission (UNIKOM), 1999-2003,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MONUC), 2003-2004, and the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East Timor (UNAMET), 2006-2007 and 2011-2012.   |
| 3  | UNPROF  | SRSG | Robeth Cooper        | USA |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Policy and Mediation Division, Director for the Americas and Europe Division and Director of the Europe Division, extensive experience in a variety of political issues across the region since 2007 i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
|    |         | FC   | Cheryl Pearce        | AUS | Served as the Australian Army's Provost-Marshal and a military observer with the UN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 in 2002.   |
| 4  | UNDOF   | FC   | Jan Khalaf           | JOR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UNRS) 2012-2013 and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ONUC), 2006-2008.  |
| 5  | UNIFIL  | FC   | Sergio Del Gal       | ITA | Served as the Deputy Forc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in 2000 as a Battalion Commander and in 2014-2015.<br>Served as Commander of Sector West and Italian Contingent Commands.  |
| 6  |         | FCO  | Opin Stewart         | GBR | Served as Acting Chief of Staff and Chief of Political Affairs at the UN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UNMIT), 2007-2009.  |
| 7  | UNPROF  | FCO  |                      | USA | Served successively with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 (UNMET),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 and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Timor-Leste (UNMIT), 1999-2004.  |
| 7  | UNMIL   | FCO  | Zarif Tami           | IND | Served as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and Ambassador of Afghanistan at the United Nations (2001-2003).<br>Elected as a Vice-President of the 63rd, 65th and 67th Ses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behalf of the Asian Group.  |
| 8  | UNMIL   | FCO  | Jaromir Kralovic     | CZE | Served UNMIL as Deputy Joint Special Representative since 2016.   |
|    |         | FC   | Leonid Mikhun        | UKR | Served as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outh Africa to the United Nations (2012-2015).<br>Served as Force Commander in the UN Mission in Liberia (2012).<br>Served as Commanding Officer, Nigerian Battalion (NIGBAT) of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UNMIL) (2011-2012).<br>Served as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12-2015).<br>Served as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 MONUSCO (2008-2012). |
| 9  | UNMIL   | FC   | Ms. Leticia Zevallos | PER | Served as Planning Office in the Force Generation Service in the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2005-2008).<br>Served as Deputy Military Adviser to the Permanent Mission of Brazil to the United Nations (2001-2003).<br>Served as Staff Officer at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 (1996-1998).   |
| 10 | UNMIL   | FC   | Margit Gahr          | AUT |   |
| 11 | UNMIL   | FCO  | David Steiner        | NL  | Served as the Secretary-General's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Resident Coordinator and Humanitarian Coordinator in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UNAMI), 2007-2009.<br>And held several similar posi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
|    |         | FC   | Stjepan Tinjak       | HRV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 (1996-1997) and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 (2000-2003).   |
|    |         | FCO  | Armando Aruffi       | ECU | Served as African Union Special Representative and Head of the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 (2012-2014).<br>Replicated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for the pre-planning and coordination of the UNMIG Mission. The author of books and academic articles o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
| 12 | UNMIL   | FC   | Dennis Gilmour       | GBR |   |
| 13 | UNMIL   | FCO  | Markus Nottveit      | NOR | Ambassador of Denmark to France (2012) and to Nepal (2010-2012).<br>Worked at the Permanent Mission of Denmark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1997-2003).<br>Served as Force Commander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UNMIL) (2003-2004).  |

## 국가별 역대 리더십 발휘 현황

<표 5> 각 활동의 시기별 역대 SRS, FC, CMO 배출 국가 현황

| 1. UNMOGIP      |     |             |     |             |     |            | 10. UNMOGIP     |            |     |             |     |            |     |            |     |
|-----------------|-----|-------------|-----|-------------|-----|------------|-----------------|------------|-----|-------------|-----|------------|-----|------------|-----|
| 17.10-18.01     | KOR | 100-17.10   | NL  | 137-187     | PL  | 113-130    | FR              | 173-188    | ZF  | 15.10-173   | NGA | 140-16.10  | NGA | 134-14.10  | GHA |
| 09.1-11.2       | KOR | 09.12-09.1  | AUS | 04.10-09.11 | NL  | 024-049    | PL              | 128-133    | BRF | 10.1-127    | NGA | 07.10-09.1 | 000 |            |     |
| 00.4-02.3       | ITA | 99.4-00.3   | AUS | 99.10-99.3  | NGA |            |                 |            |     |             |     |            |     |            |     |
| 2. UNMOGIP/AMIS |     |             |     |             |     |            | 11. UNMOGIP     |            |     |             |     |            |     |            |     |
| 09.9-10.8       | FRY | 09.7-10.8   | SWE | 149-167     | GHA | 129-149    | FRK             | 170-185    | KOR | 15.12-170   | INA | 130-15.12  | ITA | 09.9-13.8  | INA |
| 10.12-12.8      | FRY | 09.1-10.11  | FRK | 09.9-11.12  | FRK | 040-10.9   | ITA             | 07.10-09.8 | NGA |             |     |            |     |            |     |
| 02.9-04.7       | FR  | 01.8-02.8   | AUT | 07.01-7     | FRY | 030-033    | HUN             |            |     |             |     |            |     |            |     |
| 99.3-99.3       | GHA | 97.3-99.3   | FRK | 94.12-97.3  | ITA |            |                 |            |     |             |     |            |     |            |     |
| 3. UNMOGIP/SGO  |     |             |     |             |     |            | 12. MONUSCO/CPG |            |     |             |     |            |     |            |     |
| 02-10.8         | CHN | 10.6-16.2   | USA | 08.4-10.4   | ETH | 05.12-09.2 | DNK             | 17.12-18.8 | ITA | 15.10-17.12 | NGA | 13.7-15.10 | DNK | 11.7-13.7  | USA |
| 00.6-05.11      | PL  | 99.10-99.12 | DNK | 99.7-99.9   | NL  | 90.6-97.4  | FRK             | 10.1-18.8  | DNK | 15.12-15.1  | ZF  | 13.0-15.12 | FRK | 10.7-13.0  | IND |
| 4. UNMOGIP/FC   |     |             |     |             |     |            | 14. UNMOGIP     |            |     |             |     |            |     |            |     |
| 08.10-10.8      | AUS | 16.7-18.10  | BGR | 149-167     | KOR | 11.1-149   | GHA             | 18.4-18.8  | FRK | 18.4-18.4   | FRK | 17.2-18.4  | FRK | 16.1-17.2  | FRK |
| 08.4-10.12      | FR  | 08.2-09.3   | NGA | 04.1-09.2   | FRY | 02.1-03.12 | FRK             | 14.9-16.1  | FRK | 13.1-14.9   | FRK | 11.7-13.1  | FRK |            |     |
| 00.12-01.2      | NL  | 97.3-00.12  | AFG | 94.6-07.2   | FR  |            |                 |            |     |             |     |            |     |            |     |
| 5. UNMOGIP      |     |             |     |             |     |            | 15. UNMOGIP     |            |     |             |     |            |     |            |     |
| 19.10-19.1      | FR  | 17.10-19.1  | GHA | 15.2-17.10  | IND | 13.1-15.2  | NL              | 18.11-18.8 | NL  | 14.7-18.11  | DNK | 11.8-14.7  | KOR |            |     |
| 12.8-15.1       | IND | 10.3-12.8   | FRK | 07.1-10.2   | AUT | 04.1-07.1  | NL              | 19.10-19.1 | IND | 17.4-19.1   | INA | 10.0-17.4  | KOR | 14.0-10.0  | FRK |
| 09.10-04.1      | PL  | 00.8-09.8   | SWE | 99.9-00.7   | CHN | 97.8-99.8  | PL              | 12.12-14.9 | GHA | 11.8-12.11  | NGA |            |     |            |     |
| 99.1-99.10      | IND |             |     |             |     |            |                 |            |     |             |     |            |     |            |     |
| 6. UNMOGIP      |     |             |     |             |     |            | 17. MONUSCO/CPG |            |     |             |     |            |     |            |     |
| 13.7-18.8       | ITA | 10.8-13.7   | PL  | 147-169     | ITA | 12.1-147   | ITA             | 18.1-18.8  | ITA | 14.12-16.1  | TUN | 13.6-14.10 | IND |            |     |
| 10.1-12.1       | DNK | 07.2-10.1   | FR  | 04.0-07.2   | FRK | 01.8-04.0  | IND             | 18.10-18.8 | SWE | 17.2-18.10  | BEL | 15.3-15.12 | DNK | 13.7-14.12 | INA |
| 99.12-01.6      | GHA | 97.10-99.11 | FR  | 96.4-97.8   | PL  |            |                 |            |     |             |     |            |     |            |     |
| 7. MINURSO/CPG  |     |             |     |             |     |            | 19. MONUSCO/CPG |            |     |             |     |            |     |            |     |
| 17.11-18.8      | CHN | 14.8-17.11  | CHN | 12.6-14.7   | CHN | 09.10-12.4 | SPY             | 19.10-19.1 | CHN | 16.1-19.12  | GHA | 14.7-16.1  | CHN |            |     |
| 07.2-09.10      | GHA | 05.9-07.2   | ITA | 03.8-05.8   | FR  | 01.12-03.8 | USA             |            |     |             |     |            |     |            |     |
| 8. UNMOGIP      |     |             |     |             |     |            | 20. MONUSCO/CPG |            |     |             |     |            |     |            |     |

## 국가별 역대 리더십 발휘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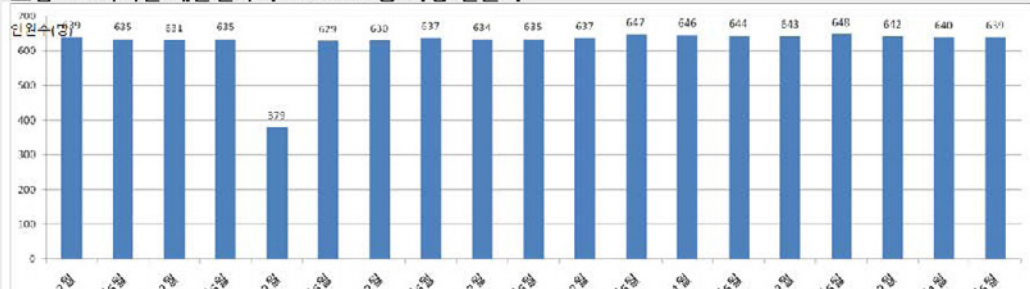
- ◆ 총 21개 분야 중 강대국 · 중견국에서 고위직책 50% 이상 배출한 분야: 15개 분야
- ◆ 국가별 역대 배출 현황
  - 강대국 30번: **이태리 9번**, 미국 7번, 독일 5번, 캐나다 5번, 중국 2번, 프랑스 · 영국 각 1번
  - 중추적 중견국 38번: **대한민국 · 나이지리아 · 인도 각 5번**, 호주 · 폴란드 각 3번, 브라질 · 방글라 · 아르헨 · 벨기에 · 남아공 · 파키스탄 각 2번, 스페인 등 각 1번
  - 일반적 중견국 32번: **덴마크 6번**, 노르웨이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핀란드 각 4번, 스웨덴 3번, 오스트리아 · 헝가리 각 2번, 알제리 · 칠레 · 포르투갈 각 1번
- ◆ 강대국은 주로 UNFICYP, MINURSO, UNMIK, MONUSCO, MINUJUSTH의 SRS에 선정
  - 높은 분담금, 낮은 수의 병력 파병으로 리더십 발휘: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는 SRS에 선정
  - \* **이태리는 UNFICYP에서 많은 수의 병력 파병으로 FC자리를 독점**
- ◆ 중견국은 아프리카 국가 독점 활동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동
  - 낮은 분담금, 높은 수의 병력 파병으로 리더십 발휘: 인도
  - 낮은 분담금, 낮은 수의 병력 파병으로 리더십 발휘: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 ☞ **과거 냉전시절 UN PKO에서 이미 리더십을 발휘한 전형적인 중견국**
- ◆ 약소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서의 FC에 선정
  -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활동 중 SRS는 강대국 및 중견국에서 선방**

### 대한민국의 UN PKO 리더십 발휘 현황

- ◆ UNFICYP SRSG: 한승주(96.5~97.4), UNFICYP FC: 왕진하(02.1~03.12)
- UNMOGIP CMO: 안중준(97.3~98.3), 김문화(08.11~10.11), 최영범 (12.6~14.6)
- 과거 UNCRO CMO: 민병석(95.7~96.1), UNOCI SRSG: 최영진(07.10~11.8)
- ☞ 2014년 이후 배출 없음(SRSG는 1997년, FC는 2003년 이후로 배출 없음)

### 대한민국의 UN PKO 파병 병력 현황

<그림 4> 시기별 대한민국의 UN PKO 총 파병 인원 수



### 대한민국의 UN PKO 파병 병력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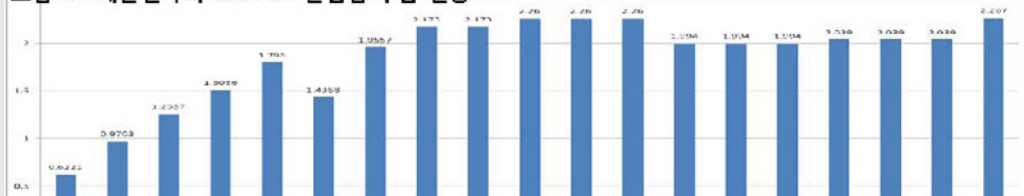
<표 6> 대한민국의 UN PKO 파병 현황

| 구분    | 활동                | 인원(명) | 활동                | 인원(명) |
|-------|-------------------|-------|-------------------|-------|
| 부대 단위 | UNIFIL(동명부대, 레바논) | 330   | UNMISS(한빛부대, 남수단) | 286   |
| 개인 단위 | UNMOGIP           | 7     | UNMISS            | 7     |
|       | UNAMID            | 1     | UNIFIL            | 4     |
|       | MINURSO           | 4     |                   |       |

☞ 5개 활동 참가, UNIFIL·UNMISS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병력 파병

### 대한민국의 UN PKO 분담금 부담 현황

<그림 5> 대한민국의 UN PKO 분담금 부담 현황



## 대한민국의 UN PKO 파병 인사정책

- ◆ 교대 주기 8개월, 1년을 고려 육군본부에서 부대 지휘관, 참모, 감시요원 선발
  - 개인별로 파병을 지원할 기회가 적음
  - 홍보 미흡, 파병 후 재 파병의 기회가 적음
- ☞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선발 구조

## 발전 방안

- ◆ 국가적 자격 측면: 안보상황 고려 합리적 · 충분한 수의 전투병력 파병
  - 온누리 부대를 여단급 → 사단급 이상 격상 필요, 최소 연대급 이상 병력 파견
  - 강대국 이태리가 1,100명 파병하여 리더십 발휘
- ◆ 개인적 능력 측면: 고위직책 선발에 목적을 둔 전문성 함양
  - 정부 차원에서 국가급 PKO센터 설립, 군 자원 관리, 과거 고위직책 경험자 정책 조연 등
  - 군 차원에서 파병 특기 부여 및 편제 조정(진급 공식 할당), 재 파병의 기회 부여 등
- ◆ 특정 활동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리더십 발휘
  - 총 21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 집중: UNTSO(CMO), UNMOGIP(CMO), UNFICYP(SRSG), UNFICYP(FC), MINURSO(SRSG), UNMIK(SRSG), MONUSCO(SRSG), MONUSCO(FC), UNMISS(SRSG), MINUSMA(FC)

- ◆ 다국적 군을 지휘할 충분한 능력이 되지만 더 이상 사령관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코리아' 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음
  - UNFICYP 군사령관 황진하
- ◆ 전장에서의 Warrior가 필요하지만, 군사외교 나아가 UN PKO에서도 Warrior가 필요
  - UNMOGIP 감시단장 김문화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대한민국 군의 우수한 능력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

가능성 있는 활동에 부대 파병 병력 수 증가  
 개인적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능력 향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발휘



# 중견국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리더십 발휘방안: 고위급 직책 배출을 중심으로

육군소령 손대선 (육군2사단)

- I. 서론
- II. 중견국 외교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론적 고찰
- III.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리더십 분석
- IV.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발전방안
- V. 결론

## I.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2019년도에 국민총소득 30,000달러와 인구수 5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G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나라이다. 또한,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인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근 K-POP과 한류열풍을 고려한다면 경성국력(Hard Power)과 연성국력(Soft Power) 측면에서 강대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현실과 정전체제 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역사적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견국 지위 그 이상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김우상, 2012, p. 7).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중견국 담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견국 외교의 전개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손열 외, 2015, p. 1). 특히, 2010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2011년 11월의 세계개발 원조총회, 2012년 3월의 핵 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중견국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외교의 3대 비전으로 “책임 있

는 중견국 외교”를 제시하였고, 2013년도에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 ‘MIKTA’의 멤버로서 각종 글로벌 이슈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같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신 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중견국의 역할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외교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여외교의 전략적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적극 강조하였다(전경만, 2010, p. 11). 이러한 전략은 2009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 2010년 해외파병 전담부대인 ‘온 누리 부대’창설, 2010년 PKO 센터 확대 및 2013년 유엔으로부터 ‘교육인증’획득, 2014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PKO 분과 의장국 임무 수행 등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2021년도에 대한민국 개최가 예정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아시아 최초의 장관회의 개최이자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여전히 미흡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평화유지활동의 기존연구들 대부분은 변화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맞추어 우리의 국격(國格)과 능력,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확대의 필요성과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근수, 정상돈, 신범철, 2008; 고성윤, 2009a, 2011b; 고성윤, 이근수, 부형욱, 2009; 김영호, 2009; 조용만, 2010; 전경만, 2010; 전재국, 2011; 이신화, 2013; 박순향, 2014; 장삼열, 2014; 최은석, 2014; 송재익, 2016; 최윤미, 2016).

하지만 기존 연구들 중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대한민국 출신 인사의 고위급 직위 선발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우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주요 고위급 인사 즉, 각 활동 별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와 군사령관(Force Commander) 및 군 옵서버 단장(Chief Military Observer and Head of Mission)(이하 특별대표,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많이 배출하지 못한 것은 적어도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이 수정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많은 수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2019년 9월부) 진행 중인 14개 활동 별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국가별 출신을 국가적 측면에서 병력파견 수와 분담금 비율, 개인적 측면에서 고위 인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또한,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활동 별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국적을 조사하여 각 국가별 선출 현황과 이에 따른 선택전략 및 경쟁국들 대비 대한민국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유엔 평화유지활동 외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고위급 직위를 배출해 내기 위한 방안을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중견국 외교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론적 고찰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정보혁명에 이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정치는 더 이상 강대국만의 정치가 아니다. 이에 선진 중견국인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중견국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여러 중견국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대표적인 중견국 이론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중견국으로서 위치와 중견국 외교로서 평화유지활동의 적절성과 중요성,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에서의 리더십 발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 1. 중견국의 이론적 관점과 대한민국

채프닉(Adam Chapnick)은 중견국의 특징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기능주의적(Functional)’측면으로써 이는 특정 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강대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외교를 추구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둘째, ‘행태주의적(Behavioral)’측면으로써 이는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외교적 특징을 의미한다. 셋째, ‘위계주의적(Hierarchical)’측면으로써 강대국보다 약하지만 약소국보다 강한 국가로 GNP 규모와 군사력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열상 중간 위치임을 의미한다(Chapnick, 1999, pp. 74-76).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쿠퍼(Andrew F. Cooper), 히곳(Richard A. Higgott), 노즐(Kim Richard Nossal)은 ‘규범적(Normative)’측면에서 국가가 도덕적으로 믿을 만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Cooper & Higgott & Nossal, 1993, pp. 14-15).

이러한 이론적 특징들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기능적 측면에서 특정 외교 분야에 집중해 왔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활동, 공적개발원조, 기후변화, 녹색성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행태주의적 측면에서도 아·태 지역에서의 APEC, ASEAN, 한-ASEAN, ACD ASEAN+3, ARF, EAS와 글로벌 차원의 OECD, WTO, ASEM, G-20, NPT, PSI, AIB,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의체 회원국으로서 다자체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계주의적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류열풍과 같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국가이자 약소국을 도와줄 수 있는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도 과거 UN으로부터의 도움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식민지 건설의 경험이 없으며 주변국과의 평화를 모색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평화 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제법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4가지 측면의 중견국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중견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 중견국 국가현황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같이 중견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은 어느 나라들이 포함될까? 이들과 우리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견국 외교를 전개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서 경쟁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중견 국가들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 경쟁 국가들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분석한다면 대한민국의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가를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중견국 리스트

| 중견국 구분  | 국 가   |
|---------|---|
| 중추적 중견국 |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호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총 21개국) |
| 일반적 중견국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자메이카, 칠레, 알제리, 코트디부아르(총 17개국)                          |
| 불만족 중견국 | 북한, 베트남, 이란(총 3개국)  |

출처: 김우상, 2016, p. 203-204.

중견국을 분류하기 위해 과거 중견국 학자들의 이론과 강대국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중견국 리스트를 작성한 김우상의 연구를 통해 중견국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우선 강대국으로서 정치적 의미에서 P5 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경제적 의미에서 G8 국가 중 P5에 포함되지 못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총 9개 국가를 강대국으로 분류하였다. 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 중견국의 필요조건으로써 국력과 충분조건으로써 외교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인 국력은 중견국의 특징 중 위계적·기능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며, 충분조건인 외교 스타일은 행태적·규범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만족시키

는 국가를 중추적 중견국, 충분조건만 만족시키는 국가를 일반적 중견국, 필요조건만 만족시키는 국가를 불만족한 중견국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국가 현황은 위의 <표 1>과 같다(김우상, 2016, pp. 190-204).

이를 바탕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9개의 강대국, 20개의 중추적 중견국과 17개의 일반적 중견국 중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수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배출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쟁국가 대비 대한민국의 현 수준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3.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로써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절성과 중요성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중견국 외교로써 적절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시 중견국으로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적절성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특정 능력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특화외교로써 최적화된 분야다. 1948년 5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냉전 시기(1948~1988)에는 15개의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반해,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 56개의 활동이 전개되어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UN 회원국들은 앞 다투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은 주어진 기회에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특화외교로써 최적화된 분야라 할 수 있다.

둘째, 행태주의적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UN 회원국 다수가 참여하는 작전으로써 다자주의적 형태를 보인다. 무엇보다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 의무 아래 제3국으로서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조성하며,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의 활동들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위계주의적 측면에서 국력이 강한 강대국들은 다국적군평화활동(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약소국들은 중견국보다 국력 면에서 뒤처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력 위주의 파병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다국적군 활동 집중으로 인한 공백과 약소국보다 앞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건설 경험이 없어 분쟁 당사국들이 대한민국 파병 군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에서 현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신뢰받는 국가인 것이다.

이처럼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대한민국의 중견국 외교로서 적합한 분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가의 사활적 이익 추구에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6. 25전쟁 시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존할 수 있었고, 전후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보답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 표현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대비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과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평화애호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명분을 세우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사활적 국가이익 추구에 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기후변화 등 중견국 외교의 다양한 분야에 비해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는 안보와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분야라 간주할 수 있다.

#### 4.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 발휘 의미와 필요성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리더십 발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파병군인, 민간인, 경찰 등을 UN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 권한을 통해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책이 바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그 국가에서 고위 직책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홈페이지에는 'Leadership'파트 부분에 각 활동 별 주요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출신 국가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각 국가는 이러한 직책을 배출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 대한민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직책에 우리의 인사가 선발되었을 때 주요 성과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고위 직책 임무를 부여할 국가적 자격과 개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적 자격은 특정 국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공헌하는 정도로 간주하였고, 그 공헌도를 국가별 파병 병력수와 분담금 비율로 구체화하였다. 실제로 UN에서는 공헌도(Contribution)에 대한 측정으로써 국가별 병력 파병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3년에 1번씩 국가별 분

담금 비율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다. 개인적 능력은 후보자가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로써 평화유지활동 또는 UN이 주관하는 연관된 직책을 과거에 수행한 경험 유무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자격과 개인적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각 활동에 적합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에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많이 배출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과연 이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가? 물론 단기간에 이것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사활적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효율 측면에서 단기간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고위직책에 많은 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그 선발 과정에서 UN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가 많아질수록 UN 내부에서의 대한민국 입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들은 주요 분쟁국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파견되어 분쟁 현장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분쟁국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업적들이 오랜 기간 쌓인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시킬 수 있다. 결국 유엔 평화유지활동분야에서만은 대한민국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유리한 ‘규범 만들기(norm making)’를 할 수 있는 것이다(김우상, 2016, p. 25). 이는 안보문제에 있어 사활적 이익추구를 위해 강대국 간의 정치에 종속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자 장기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 중견국 이론가들은 특정 분야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중견국 외교 스타일 강조한다. 이들은 중견국들이 특정사안을 주도하고 주변국의 관심을 끄는 촉매제(Catalyst)로서의 역할, 그러한 사안에 대해 아젠다 세팅을 주도하고 다자주의를 표방하여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관습과 규범으로 발전시켜 영구화시키는 관리자(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Cooper & Higgott & Nossal, 1993). 또한, 이러한 촉매-촉진-관리의 모습이 순환적 메커니즘으로 이어져 지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주도적으로 모으며, 합의된 사항을 정례화, 규범화하여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발휘한 리더십은 또 다른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바탕으로 되며, 다시 아젠다를 세팅하고 관리하는 반복적인 절차로 이어져 리더십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에 과거 전통 중견국들은 평화유지활동에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직위를 차지하면서 촉매-촉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고위직책을 수행한 관료들은 해당사안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평화유지활동 내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변화시켜 왔다. 현재 전통 중견국들이 예전처럼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고위직책을 배출하면서 주요 제도 및 규범 개선 시 대표국으로 선정되는 것은 그동안 발휘한 리더십이 여전히 관성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늦게 후발주자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고위직책을 많이 배출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새로운 촉매-촉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리더십 분석

#### 1.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의 고위 직책과 선발

##### 가.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유엔안보리로부터 위임명령을 받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하지만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기에 각 활동의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자신의 임무를 재위임한다. 따라서 특별대표는 위임명령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사무총장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최고 관리자이며 모든 활동사항에 대해서 유엔본부의 DPKO(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와 사무총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특별대표의 임무는 평화활동의 촉진자로서 정치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상대로 평화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중립적 위치에서 민감한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의 대표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당 활동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활동 및 결과에 책임을 지며, 임시 또는 과도 행정관으로서 특정 국가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고,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정부기능을 직접 대행할 수 있다(송승중, 2006, pp. 291-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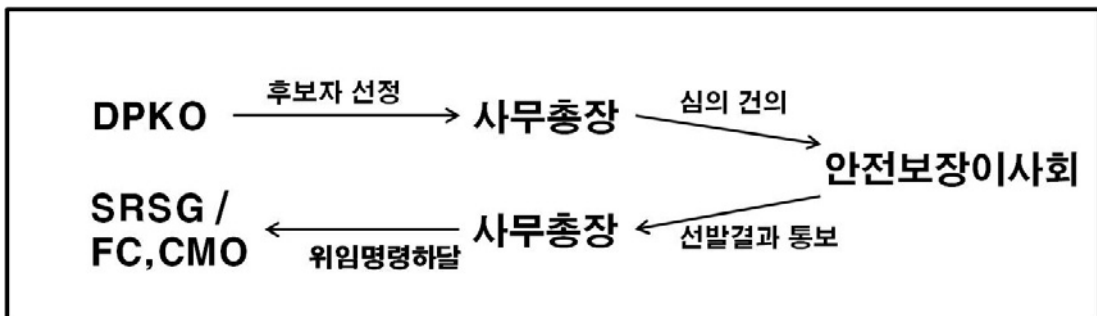
##### 나. 군사령관(FC) 및 감시단장(CMO)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역시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군사 분야의 최고 책임자다. 군사령관은 각 활동 특별대표의 군사담당 최고 참모이며, 특별대표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활동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비록 특별대표의 참모로서 통제를 받지만 군 병력 위주의 활동이 대부분인 평화유지활동에서 세계 각국의 병력과 소령에서 대령급으로 구성된 참모진들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지시·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직책이라 간주할 수 있다. 감시단장은 평화유지활동의 임무 상 대규모 병력파견이 필요 없는 감시·감독 위주의 활동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대위

에서 소령급 장교들로 편성된 군 옵서버(Military Observer)를 통제하는 최고 지휘관이다(한국안보문 제연구소, 2009, pp. 44-45). 이들 역시 특별대표가 임명되지 않은 활동에서는 최고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나타내는 직책이라 볼 수 있다.

#### 다. 선발 절차

1992년에 신설된 UN DPKO는 평화유지활동에서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핵심기구이다.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안보리에 제출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사무총장의 임무를 대신할 특별대표나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에 대해 DPKO에서 작성한 신입 후보자 안을 안보리에 제출하면 안보리에서 심의를 통해 선발하고, 그 선발결과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무총장은 신입 후임자를 정식으로 임명한다. 이러한 선발 과정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DPKO가 후보자 선발과정에 관여하고 선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무총장이 안보리 회장에게 보낸 신입 후보자 건의 서신과 안보리 회의 후 결정된 사안을 사무총장에게 회신한 서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무총장이 이미 후임자를 결정한 가운데 그 인원을 안보리에 통보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림 1〉 SRSG, FC, CMO 선발 절차

#### 라. 선발 기준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개인적 영역에서 대상자가 평화유지활동이나 UN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수년간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총장이 신입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임명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해당 관련 직위에 종사한 경험과 그동안의 근무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무의 특성상 근무 경험이 충분히 있고 근무 간 그 우수성이 입증된 인사를 각 활동의 리더로서 선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의 자격 측면에서는 각 국가의 병력 파견 비율과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부담 비율이다. 군

사령관은 통상 병력을 파견한 나라에서 선발된다. 그런데 한 국가의 병력 파견 비율이 높을수록 UN에서는 그 국가를 평화유지활동에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병력 파견 비율과 고위급 직위 선발 가능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후진국은 병력 파견 수에 있어서 선진국 및 중견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후진국에서도 특별대표와 군사령관이 선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은 각국의 자발적 분담비용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3년에 1번씩 국가별로 분담금 부담 비율을 평가하는데, 국가별로 분담하는 분담금 비율이 특별대표나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유지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개인적 능력으로써 근무경험과 국가적 자격으로써 병력파견 비율 및 분담금 부담 비율을 분석하여 고위직 선발과의 연관성과 타당성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고위직책을 배출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각 활동 별 주요 리더십 분석 및 평가

### 가.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평화유지활동 중 그 시기를 1996년부터 현재까지만 한정하였다. 또한, 이 기간 사이에 새로 생겨난 활동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활동들만 사례로 선정하였다. 1996년을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시점이 평화유지활동의 개혁기인 제4기의 시점으로써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sup>1)</sup> 현재의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에 1996년 이전의 활동들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14개의 활동과 그 활동 중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배출 국가를 1996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여 제시할 것이다.

아래 <표 2>를 분석해 보면 현재 총 21개의 고위직 자리 중 강대국은 캐나다 2명, 이탈리아 1명, 미국에서 1명이 선발되어 총 4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에서 제시한 중견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은 중추적 중견국과 일반적 중견국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국가가 9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이 포함된 중추적 중견국은 호주,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에서 5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 중견국은 노르웨이, 알제리,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4개의 자리를

1) 박순향(2014)의 연구에 따르면 평화활동을 초창기(1948-1978), 전성기(1988-1992), 도전기(1993-1995), 개혁기(1996-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개혁기에 '브라히미 리포트(Brahimi report)'와 같은 개혁안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현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의 약소국은 우루과이, 네팔, 아프가니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차드, 세네갈에서 8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현재 진행 중인 14개 활동 현황과 SRSG, FC, CMO의 출신 국적<sup>2)</sup>

| 순서 | 성격                        | 활동        | 설립일     | 작전지역               | SRSG<br>출신국 | FC<br>출신국 | CMO<br>출신국 |
|----|---------------------------|-----------|---------|--------------------|-------------|-----------|------------|
| 1  | 감시<br>감독<br>및<br>경찰<br>활동 | UNTSO     | 1948.5  | Middle East        | ·           | ·         | NOR        |
| 2  |                           | UNMOGIP   | 1949.1  | India-<br>Pakistan | ·           | ·         | URY        |
| 3  |                           | UNMIK     | 1999.6  | Kosovo             | AFG         | ·         | ·          |
| 4  |                           | MINUJUSTH | 2017.10 | Haiti              | USA         | ·         | ·          |
| 5  | 군<br>병력<br>위주<br>활동       | UNFICYP   | 1964.3  | Cyprus             | CAN         | AUS       | ·          |
| 6  |                           | UNDOF     | 1974.6  | Golan              | ·           | NPL       | ·          |
| 7  |                           | UNIFIL    | 1978.3  | Lebanon            | ·           | ITA       | ·          |
| 8  |                           | MINURSO   | 1991.4  | Western<br>Sahara  | CAN         | PAK       | ·          |
| 9  |                           | UNAMID    | 2007.7  | Daufur             | ZAF         | KEN       | ·          |
| 10 |                           | MONUSCO   | 2010.7  | Congo              | DZA         | BRA       | ·          |
| 11 |                           | UNISFA    | 2011.6  | Abyei<br>Sudan     | ·           | ETH       | ·          |
| 12 |                           | UNMISS    | 2011.7  | South<br>Sudan     | NZL         | IND       | ·          |
| 13 |                           | MINUSMA   | 2013.3  | Mali               | TCO         | SWE       | ·          |
| 14 |                           | MINUSCA   | 2014.4  | Central<br>Africa  | SEN         | SEN       | ·          |

## 나. 분석 및 평가

### 1) 국가별 파견 병력 수에 의한 선발

2019년 6월 기준으로 UNTSO와 UNMOGIP 활동에는 각각 150명, 44명의 병력이 파견되어 있고 감시단장이 최고 직책이다. 두 활동은 전투 병력이 파견되기보다 장교들이 소수로 파병되어 정전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에 파병 병력 수에 따른 감시단장 선발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

2) <https://digitallibrary.un.org>(검색일: 2019.09.20.)의 각 활동 별 사무총장과 안보리와의 서신을 분석하여 현재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확인하였다.

였다. 또한, UNMIK 활동에는 군 연락장교가 38명 파견되어 있고, 대부분의 인원은 경찰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대표가 최고 직책이다. 이 활동은 코소보 지역에서의 과도정부 수립과 인도적 지원 및 인권향상과 같은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파병 병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아이티에서 설립된 MINUJUSTH 활동도 대부분 인원들이 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활동은 UNMIK과 마찬가지로 치안 강화, 법 제도 강화, 인권의 보호 등 아이티 정부를 돕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아이티 안정화 임무(MINUSTAH) 종료 후 이어서 시행되고 있다. MINUSTAH 활동에서는 브라질이 리더십을 발휘하였는데 반해, 현 MINUJUSTH 활동에서는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표 3>은 14개 현행 활동 중 위에서 언급한 4개 활동을 제외한 실질적인 군 병력 위주 활동 10개를 대상으로 각 활동 별 파견 병력 수의 국가별 순위를 1위부터 5위 까지 제시하였다.

<표 3> 현재 진행 중인 군 병력 위주 활동 10개에 대한 파견병력 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sup>3)</sup>

| 순서 | 활 동     | 참여 국수 | 총 활동 인원수(명) | 파견 병력 수에 의한 국가별 순위 |     |     |     |     |
|----|---------|-------|-------------|--------------------|-----|-----|-----|-----|
|    |         |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1  | UNFICYP | 25    | 943         | GBR                | SVK | ARG | CHL | PRY |
| 2  | UNDOF   | 10    | 864         | NPL                | FJI | IND | IRL | GHA |
| 3  | UNIFIL  | 42    | 10,062      | IDN                | ITA | NPL | GHA | MYS |
| 4  | MINURSO | 37    | 245         | EGY                | BGD | RUS | CHN | PAK |
| 5  | UNAMID  | 43    | 15,854      | RWA                | PAK | ETH | TZA | CHN |
| 6  | MONUSCO | 54    | 16,215      | PAK                | IND | BGD | MAR | ZAF |
| 7  | UNISFA  | 32    | 4,791       | ETH                | GHA | LKA | ZWE | BGR |
| 8  | UNMISS  | 73    | 14,282      | RWA                | IND | ETH | NPL | BGD |
| 9  | MINUSMA | 59    | 13,289      | BFA                | TCD | BGD | SEN | EGY |
| 10 | MINUSCA | 56    | 11,650      | RWA                | PAK | BGD | EGY | ZMB |

<표 2>에 제시된 각 활동에서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의 국적을 <표 3>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0개의 활동 중 UNFICYP, UNAMID, MONUSCO, MINUSCA를 제외한 6개의 활동에서 병력 파병 순위 최소 5위 이내의 국가로부터 특별대표나 군사령관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당 활동에서의 병력 파견 순위 2위 이내의 국가들 중 5개 활동에서 고위급 직책이 선정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예외 활동을 분석해 보면 우선 UNFICYP은 ‘Cyprus’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으로써 북쪽의 터키군

3) <https://peacekeeping.un.org/en/mission/>(검색일: 2019.9.20.). 각 활동 별 “Contributing countries”에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또한, 여기서의 병력은 민간인을 제외한 전투 군인만 포함하였다.

과 남쪽의 그리스군 사이에서 휴전을 중재하고 있다. 이 지역 활동은 무엇보다 두 분쟁 당사국이 중견국이라는 점에서 강대국 또는 중견국의 주도하에 활동이 이어져 왔다. 아래 <표 5>와 같이 예전부터 강대국 및 중견국 위주로 특별대표 및 군사령관이 배출된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단순 파견병력 수에 의한 선출보다는 중견국 이상 국가 출신으로서 당사자의 개인적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이 활동에서 많은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특별대표(한승주, 96.5~97.4)와 1명의 군사령관(황진하, 02.1~03.12)을 배출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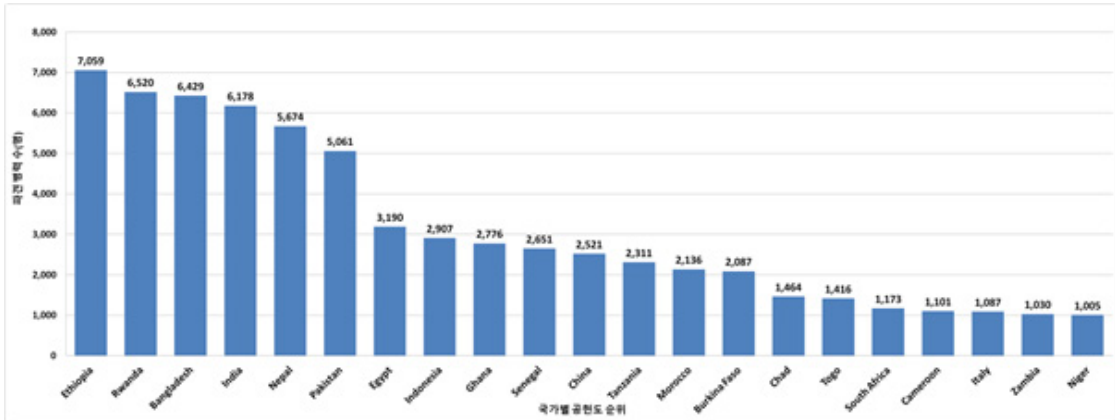
MINUSCA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활동으로써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MISCA)이 임무를 수행해오다가 2014년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활동이 진행될 것임을 판단할 수 있고, 역대 특별대표 및 군사령관도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다. 현재 특별대표와 군사령관은 모두 세네갈 출신인데, 세네갈은 이 활동에서 군 병력이 아닌 다수의 경찰을 파견한 것에 주목할 만 하다. UN 주도의 활동으로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에 익숙한 아프리카 출신 위주의 특별대표나 군사령관이 나올 것으로 추측해 본다.

UNAMID의 경우 병력 파견 수와는 연관이 없지만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출신에서 고위직책이 선발되었다. 특히 <표4>에서와 같이 남아공 출신의 특별대표는 2016년도에 부(Deputy)특별대표로 활동 했다는점, 그리고 케냐 출신의 군사령관은 다수의 UN활동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역량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ONUSC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력 파견 수와 연관 없다. 하지만 알제리 출신의 특별대표는 과거 4년간 부(Deputy)특별대표로 활동하였으며, 브라질 출신의 사령관도 다수의 UN활동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역량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력 파견 수에 의한 고위 직책 선발 가능성 고려 시, 추가로 확인해 볼 사항은 국가별 전체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총 병력 파견 순위이다. <그림 2>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각 국가의 전체 병력 파견 순위이자 공헌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토대로 <표 2>에 제시된 병력 파견 위주 각 활동에서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의 국적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특별대표는 7개자리 중 3개자리에서 병력 파병 순위 20위권 이내의 국가에서 배출되었다. 나머지 4개자리 중 2개자리는 캐나다, 1개자리는 뉴질랜드와 알제리 인데, 강대국인 캐나다는 병력 파견 순위 63위, 중견국인 뉴질랜드는 100위인 것을 보면 과거 평화유지활동에서 발휘했던 리더십이 관성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알제리 출신의 특별대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년 동안 해당 직책의 부(Deputy)특별대표를 맡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사령관은 10개자리 중 6개자리에서 병력 파병 순위 20위권 이내의 국가에서 배출되었다. 나머지 4개자리는 각각 호주, 브라질, 스웨덴, 케냐에서 선발되었는데 특히, 중견국인 호주, 브라질, 스웨덴은 순위가 80위, 47위, 44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순위가 36위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발된 인원의 개인적인 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2〉 국가별 병력 파견 수에 따른 국가 공헌도 순위<sup>4)</sup>

병력 파견 수에 따른 고위직책 선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의 사례만을 바탕으로 이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활동에서의 5위권 순위와 전체 활동에서의 20위권 순위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 것도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를 통해 대략적인 추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활동을 기준으로 특정 활동에서 많은 수의 병력을 파병할수록 고위 직책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 중 이탈리아, 인도가 각 활동 별 2위권 이내의 병력을 파견하면서 고위직책을 배출해 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병력의 파병 순위에서도 우리보다 공헌도가 높은 나라 중 고위직책을 배출해 낸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이탈리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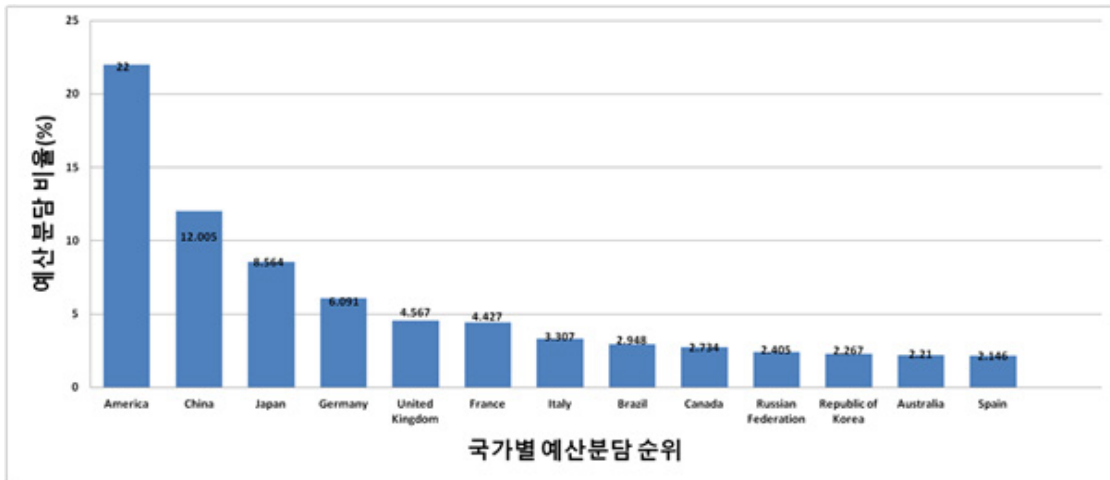
## 2) 국가별 분담금 부담 순위에 따른 선발

UN에서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3년마다 국가별 A에서 J까지 총 10개의 등급을 부여하여 회원국

4)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검색일: 2019.09.20.)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1위 에티오피아부터 21위 니제르까지는 순위대로 나열하였다. 대한민국 순위 36위를 기준으로 우리보다 앞선 대표적인 강대국 또는 중견국 현황으로 방글라데시 3위, 인도 4위, 파키스탄 6위, 이집트 7위, 인도네시아 8위, 중국 11위, 남아공 17위, 이태리 19위, 말레이시아 26위, 프랑스 30위, 스페인 34위, 아일랜드 35위이며, 그 이외 영국 37위, 독일 38위, 브라질 47위, 아르헨티나 48위, 캐나다 63위, 터키 64위, 러시아 70위, 호주 80위, 미국 82위이다.

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가장 많은 분담을 하는 A그룹, 가장 개발이 저조한 국가를 최하위 J그룹, 특별히 지정된 국가는 C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밖의 7개 그룹은 특정 시기 6년간의 국민총생산(GNP)을 중심으로 그 등급이 결정되며, 국가의 등급에 따라 전체 분담금 중 각 국가가 분담해야 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국가의 등급별로 거두어들인 총예산은 각 활동 별 예산 수요에 따라 UN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분배된다. 이는 특정 활동에 각 국가가 선택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예산 분야는 특정 활동에 각 국가가 임의로 집중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에 의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선발여부는 특정 활동에 분담하는 분담금이 아닌 평화유지활동 전체에 분담하는 총 분담금 부담 비율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림 3〉 국가별 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 순위(2019년도 기준)<sup>5)</sup>

위 〈그림 3〉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분담금 대비 부담 비율이 최소 2% 이상인 13개 국가를 선별하여 순위를 산정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임무를 맡은 국가는 캐나다(2개자리), 미국(1개자리), 호주(1개자리), 이탈리아(1개자리), 브라질(1개자리)로 총 5개국이다. 즉 21개의 고위직 자리 중 예산분담 순위 13위 이내의 국가들이 차지한 자리는 6개자리에 불과한 28%이다. 따라서 국가별 분담금 부담 정도는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e-나라지표(검색일: 2019.09.20.).

### 3) 개인별 근무 경험에 따른 선발

현재 활동 중인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은 적게는 200여 명에서 최대 16,000여 명 이상의 각 활동별 전 세계 파병 인원들을 통제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 개개인의 전문적 능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 군사적 지식, 리더십, 현지에 대한 정보와 국제적 감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과거 UN에서 주관한 활동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는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4>에 의하면 현재 UNISFA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네갈 출신의 감시단장 ‘Mehari Zewde Gebremariam’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최소 2년 이상 UN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활동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표들은 보통 UN 본부와 DPKO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거나 국가를 대표하여 UN에서 근무한 외교관이거나 평화유지활동에서의 특별대표 또는 부(Deputy)특별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대부분은 과거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전투요원, 참모요원, 부대 지휘관 또는 감시단 감시 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사전 근무 경험은 최고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중한 경험이자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인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병력 파견 위주의 활동에서 많은 수의 병력을 파견하지 않은 국가에서 고위 직책이 선발된 것은 해당 인원의 근무 실적, 능력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고위직책에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UN이 주관한 다양한 활동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근무를 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4> 각 활동별 현 SRSG, FC, CMO의 과거 UN 관련 경력<sup>6)</sup>

| 순서 | 활 동   | 직책  | 이 름          | 국적  | 경 력  |
|----|-------|-----|--------------|-----|--|
| 1  | UNTSO | CMO | Kristin Lund | NOR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in 1986 and the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UNPROFOR, 1992 – 1993 and 1994–1995),<br>Served as Forc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UNFICYP, 2014–2016). |

6) 유엔 홈페이지의 각 활동 별 리더십 부분에서 현재 임무 수행 중인 모든 리더에 대한 ‘Biography’를 참고로 이들이 활동했던 대표적인 UN에서의 직책들을 재작성함.

| 순서 | 활동      | 직책   | 이름                    | 국적  | 경력   |
|----|---------|------|-----------------------|-----|--|
| 2  | UNMOGIP | CMO  | JoséEladio Alcaín     | URY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Rwanda (UNAMIR, 1994–1995),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UNAVEM, 1996–1997), the United Nations Iraq–Kuwait Observation Mission(UNIKOM, 1999–2000),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MONUC, 2003–2004), and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MINUSTAH, 2006–2007 and 2011–2012). |
| 3  | UNFICYP | SRSG | Elizabeth Spehar      | CAN |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Policy and Mediation Division, Director for the Americas and Europe Division and Director of the Europe Division, engaging extensively on key political issues facing the region since 2007 i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
|    |         | FC   | Cheryl Pearce         | AUS | Served as the Australian Army’s Provost–Marshal and a military observer with the United Nations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 in 2002.  |
| 4  | UNDOF   | FC   | Shivaram Kharel       | NPL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2012–2013) and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2005–2006),<br>Served as the Deputy Forc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UNIFIL).   |
| 5  | UNIFIL  | FC   | Stefano Del Col       | ITA | Served with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in 2008 as a Battalion Commander and in 2014–2015,<br>Served as Commander of Sector West and Italian Contingent Commander.  |
| 6  | MINURSO | SRSG | Colin Stewart         | CAN | Served as Acting Chief of Staff and Chief of Political Affairs at the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UNMIT, 2007–2009),<br>Served successively with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UNAMET),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UNTAET) and the United Nations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UNMISSET, 1999–2004).  |
|    |         | FC   | General Zia Ur Rehman | PAK | Served as a Military Observer in the then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MONUC),<br>Served as Senior National Representative in the United States Central Command Headquarters(CENTCOM, 2015–2016).  |
| 7  | UNMIK   | SRSG | Zahir Tanin           | AFG | Served as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and Ambassador of Afghanistan at the United Nations(2006–2015),<br>Elected as a Vice–President of the 63rd, 65th and 67th Ses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behalf of the Asian Group.  |

| 순서 | 활동      | 직책   | 이름                                 | 국적  | 경력   |
|----|---------|------|------------------------------------|-----|--|
| 8  | UNAMID  | SRSG | Jeremiah Nyamane Kingsley Mamabolo | ZAF | Served UNAMID as Deputy Joint Special Representative since 2016,<br>Served as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outh Africa to the United Nations(2013–2016).   |
| 8  | UNAMID  | FC   | Leonard Muriuki Ngondi             | KEN | Served as Force Commander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2012),<br>Served as commanding Officer, Kenyan battalion (KENBATT)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Sierra Leone(2000).   |
| 9  | MONUSCO | SRSG | Ms. Leila Zerrougui                | DZA | Served as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in Armed Conflict(2012–2016),<br>Served as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 MONUSCO(2008–2012).  |
|    |         | FC   | Elias Rodrigues Martins Filho      | BRA | Served as Planning Officer in the Force Generation Service in the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2005–2008),<br>Served as Deputy Military Adviser to the Permanent Mission of Brazil to the United Nations(2001–2003),<br>Served as Staff Officer at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1995–1996). |
| 10 | UNISFA  | FC   | Mehari Zewde Gebremariam           | SEN | .  |
| 11 | UNMISS  | SRSG | David Shearer                      | NZL | Served as the Secretary-General's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Resident Coordinator and Humanitarian Coordinator in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UNAMI, 2007–2009).<br>And held several senior posi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
|    |         | FC   | Shailesh Tinaikar                  | IND | Served in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1996–1997), and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2008–2009).  |
| 12 | MINUSMA | SRSG | Mahamat Annadif                    | TCD | Served as African Union Special Representative and Head of the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2012–2014).  |
|    |         | FC   | Dennis Gyllensporre                | SWE | Deployed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for the pre-planning and coordination of the UNMIS Mission,<br>The author of books and academic articles o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

| 순서 | 활동         | 직책   | 이름                        | 국적  | 경력   |
|----|------------|------|---------------------------|-----|--|
| 13 | MINUSCA    | SRSO | Mankeur Ndiaye            | SEN | Ambassador of Senegal to France(2012) and to Mali (2010-2012),<br>Worked at the Permanent Mission of Senegal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1997-2003). |
|    |            | FC   | Balla Keita               | SEN | Served as Deputy Force Commander in African Union-UN Hybrid Operation in UNAMID(2013) and Sector Commander in UNAMID(2007-2010).                           |
| 14 | MINU JUSTH | SRSO | Ms. Helen Meagher La Lime | USA | Served as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to Angola(2014-2017), and as Director of Outreach of the US Africa Command in Germany(2011-2013).            |

### 3. 국가별 역대 리더십 발휘 현황

〈표 5〉 각 활동의 시기별 역대 SRSO, FC, CMO 배출 국가 현황<sup>7)</sup>

| 1. UNTSO(CMO)    |     |             |     |             |     |            |     |  |
|------------------|-----|-------------|-----|-------------|-----|------------|-----|--|
| 17.10-현재         | NOR | 15.8-17.10  | NZL | 13.7-15.7   | IRL | 11.3-13.6  | FIN |  |
| 09.1-11.2        | NOR | 06.12-09.1  | AUS | 04.10-06.11 | NZL | 02.4-04.9  | IRL |  |
| 00.4-02.3        | ITA | 98.4-00.3   | AUS | 95.10-98.3  | NGA |            |     |  |
| 2. UNMOGIP(CMO)  |     |             |     |             |     |            |     |  |
| 18.6-현재          | URY | 16.7-18.6   | SWE | 14.6-16.7   | GHA | 12.6-14.6  | ROK |  |
| 10.12-12.6       | URY | 08.11-10.11 | ROK | 05.9-07.12  | HRV | 04.8-05.9  | ITA |  |
| 02.9-04.7        | FIN | 01.8-02.8   | AUT | 00.7-01.7   | URY | 99.3-00.3  | HUN |  |
| 98.3-99.3        | CHL | 97.3-98.3   | ROK | 94.12-97.3  | ITA |            |     |  |
| 3. UNFICYP(SRSO) |     |             |     |             |     |            |     |  |
| 16.2-현재          | CAN | 10.5-16.2   | USA | 08.4-10.4   | ETH | 05.12-08.3 | DNK |  |
| 00.6-05.11       | POL | 99.10-99.12 | 미확인 | 98.7-99.9   | NZL | 96.5-97.4  | ROK |  |
| 4. UNFICYP(FC)   |     |             |     |             |     |            |     |  |
| 18.10-현재         | AUS | 16.7-18.10  | BGD | 14.8-16.7   | NOR | 11.1-14.8  | CHN |  |
| 08.4-10.12       | PER | 06.2-08.3   | ARG | 04.1-06.2   | URY | 02.1-03.12 | ROK |  |
| 99.12-01.12      | NPL | 97.3-99.12  | ARG | 94.8-97.2   | FIN |            |     |  |
| 5. UNDOF(FC)     |     |             |     |             |     |            |     |  |
| 19.5-현재          | NPL | 17.10-19.5  | GHA | 16.2-17.10  | IND | 15.1-16.2  | NPL |  |
| 12.8-15.1        | IND | 10.3-12.8   | PHL | 07.1-10.2   | AUT | 04.1-07.1  | NPL |  |
| 03.8-04.1        | POL | 00.8-03.8   | SWE | 98.9-00.7   | CAN | 97.6-98.8  | IRL |  |

7) <https://www.un.org/en/sc/documents/letters/>(검색일: 2019.9.20.).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안보리 회장과 유엔 사무총장 사이에서의 주요 인사 선발에 관한 교환 서신을 바탕으로 재작성. 여기서 현재일은 2019년 9월 기준임.

|                   |     |             |     |             |     |            |     |
|-------------------|-----|-------------|-----|-------------|-----|------------|-----|
| 95.1-97.5         | NLD |             |     |             |     |            |     |
| 6. UNIFIL(FC)     |     |             |     |             |     |            |     |
| 18.7-현재           | ITA | 16.6-18.7   | IRL | 14.7-16.6   | ITA | 12.1-14.7  | ITA |
| 10.1-12.1         | ESP | 07.2-10.1   | ITA | 04.2-07.2   | FRA | 01.8-04.2  | IND |
| 99.12-01.5        | GHA | 97.10-99.11 | FJI | 95.4-97.9   | POL |            |     |
| 7. MINURSO(SRSG)  |     |             |     |             |     |            |     |
| 17.11-현재          | CAN | 14.8-17.11  | CAN | 12.5-14.7   | DEU | 09.10-12.4 | EGY |
| 07.2-09.10        | GBR | 05.9-07.2   | ITA | 03.8-05.8   | PER | 01.12-03.8 | USA |
| 99.3-01.11        | USA | 97.1-99.3   | USA |             |     |            |     |
| 8. MINURSO(FC)    |     |             |     |             |     |            |     |
| 19.2-현재           | PAK | 16.11-19.2  | CHN | 15.9-16.11  | PAK | 13.7-15.9  | IDN |
| 11.4-13.7         | BGD | 07.8-11.4   | CHN | 05.9-07.8   | DNK | 02.8-05.8  | HUN |
| 99.11-02.8        | BEL | 97.8-99.10  | AUT | 96.11-97.7  | PRT |            |     |
| 9. UNMIK(SRSG)    |     |             |     |             |     |            |     |
| 15.9-현재           | AFG | 11.10-15.8  | AFG | 08.6-11.6   | ITA | 06.9-08.6  | DEU |
| 04.6-06.7         | DNK | 03.7-04.6   | FIN | 02.1-03.7   | DEU | 01.1-02.1  | DNK |
| 99.7-01.1         | DEU |             |     |             |     |            |     |
| 10. UNAMID(SRSG)  |     |             |     |             |     |            |     |
| 17.3-현재           | ZAF | 15.10-17.3  | NGA | 14.10-15.10 | NGA | 13.4-14.10 | GHA |
| 12.8-13.3         | 임시직 | 10.1-12.7   | NGA | 07.10-09.?  | COD |            |     |
| 11. UNAMID(FC)    |     |             |     |             |     |            |     |
| 17.8-현재           | KEN | 15.12-17.8  | RWA | 13.6-15.12  | TZA | 09.9-13.3  | RWA |
| 07.10-09.8        | NGA |             |     |             |     |            |     |
| 12. MONUSCO(SRSG) |     |             |     |             |     |            |     |
| 17.12-현재          | DZA | 15.10-17.12 | NER | 13.7-15.10  | DEU | 10.7-13.7  | USA |
| 13. MONUSCO(FC)   |     |             |     |             |     |            |     |
| 18.1-현재           | BRA | 15.12-18.1  | ZAF | 13.6-15.12  | BRA | 10.7-13.6  | IND |
| 14. UNISFA(FC)    |     |             |     |             |     |            |     |
| 19.4-현재           | ETH | 18.4-19.4   | ETH | 17.2-18.4   | ETH | 16.1-17.2  | ETH |
| 14.6-16.1         | ETH | 13.1-14.6   | ETH | 11.7-13.1   | ETH |            |     |
| 15. UNMISS(SRSG)  |     |             |     |             |     |            |     |
| 16.11-현재          | NZL | 14.7-16.11  | DNK | 11.6-14.7   | NOR |            |     |
| 16. UNMISS(FC)    |     |             |     |             |     |            |     |
| 19.5-현재           | IND | 17.4-19.5   | RWA | 16.6-17.4   | KEN | 14.6-16.6  | ETH |
| 12.12-14.6        | GHA | 11.6-12.11  | NGA |             |     |            |     |
| 17. MINUSMA(SRSG) |     |             |     |             |     |            |     |
| 16.1-현재           | TCD | 14.12-16.1  | TUN | 13.5-14.10  | NLD |            |     |

|                     |     |            |     |            |     |            |     |
|---------------------|-----|------------|-----|------------|-----|------------|-----|
| 18. MINUSMA(FC)     |     |            |     |            |     |            |     |
| 18.10-현재            | SWE | 17.2-18.10 | BEL | 15.3-16.12 | DNK | 13.7-14.12 | RWA |
| 19. MINUSCA(SRSG)   |     |            |     |            |     |            |     |
| 18.12-현재            | SEN | 16.1-18.12 | GAB | 14.7-16.1  | SEN |            |     |
| 20. MINUSCA(FC)     |     |            |     |            |     |            |     |
| 16.2-현재             | SEN | 14.7-15.11 | CMR |            |     |            |     |
| 21. MINUJUSTH(SRSG) |     |            |     |            |     |            |     |
| 18.5-현재             | USA | 17.10-18.5 | USA |            |     |            |     |

위 <표 5>는 각 활동의 시기별 역대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배출국 현황을 제시하였다. 총 21개 분야 중 중견국이 해당 분야의 50% 이상을 차지한 활동은 총 10개(1, 2, 3, 4, 5, 8, 10, 13, 15, 18) 분야이다. 만약 중견국과 더불어 9개의 강대국을 포함한다면 5개 분야(6, 7, 9, 12, 21)가 추가된 15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중견국과 강대국에서 많은 수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수준별로 강대국에서 총 30번, 중추적 중견국에서 총 38번, 일반적 중견국에서 총 32번, 나머지 국가에서 총 49번이 배출되었다. 강대국은 이탈리아에서 9번, 미국에서 7번, 독일에서 5번, 캐나다에서 5번, 중국에서 2번, 프랑스·영국에서 각 1번 배출되었다. 중추적 중견국은 대한민국·나이지리아·인도에서 각 5번, 호주와 폴란드에서 각 3번, 브라질·방글라데시·아르헨티나·벨기에·남아공·파키스탄에서 각 2번, 스페인·인도네시아·이집트·네덜란드·필리핀에서 각 1번 배출되었다. 일반적 중견국은 덴마크에서 6번, 노르웨이·뉴질랜드·아일랜드·핀란드에서 각 4번, 스웨덴에서 3번,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각 2번, 알제리·칠레·포르투갈에서 각 1번 배출되었다.

강대국들은 주로 UNFICYP, MINURSO, UNMIK, MONUSCO, MINUJUSTH 활동에서의 특별대표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력 파병 수는 적지만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특별대표의 역할이 각 활동에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강대국에서는 주로 특별대표가 많이 선발된다. 하지만 병력을 많이 파병하고 특정 활동에 집중을 하는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이 부대파병을 하고 있는 UNFICYP에서 군사령관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뒤늦게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중국도 세계 11위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각 활동에서 군사령관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견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많은 수의 고위직책을 선발시켰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배출되지 않았고 특히, 특별대표는 1997년, 군 사령관은 2003년 이후로 배출된 경험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이 파병하는 활동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반면 분담금 비율은 낮지만 많은 수의 병력 파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인도는 대한민국보다 다양한 활동에 병력을 파견하여 여러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 중견국 중 분담금 비율도 낮고, 적은 수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 직책을 배출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있다. 해당 국가들은 과거 냉전시 기 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 큰 역할을 한 나라들로서 기존에 발휘했던 리더십이 관성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국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고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많은 파병 기회와 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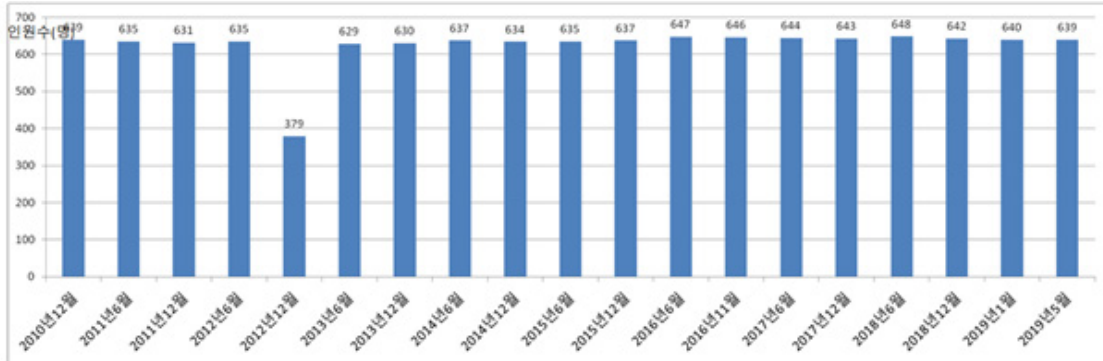
그 이외 약소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는 11, 14, 16, 17, 19, 20이며 이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이고 주로 군사령관 직책이다. 대부분의 배출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병력을 쉽게 많이 파병할 수 있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에서 고위직책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서의 특별대표 자리(7, 10, 12, 15)는 강대국 및 중견국에서 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할 만 하다.

## IV.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발전방안

### 1.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및 리더십 평가

대한민국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서 총 5명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배출하였다. 한승주 UNFICYP 특별대표(96.5~97.4), 안충준 UNMOGIP 감시단장(97.3~98.3), 황진하 UNFICYP 군사령관(02.1~03.12), 김문화 UNMOGIP 감시단장(08.11~10.11), 최영범 UNMOGIP 감시단장(12.6~14.6)이 있으며, 과거 종료된 활동에서는 민병석 UNCRO 감시단장(95.7~96.1), 최영진 UNOCI 특별대표(07.10~11.8)가 배출되었다. 특히 UNMOGIP에서 감시단장이 3번이나 배출된 것을 포함하여 총 4번의 감시단장과 2번의 특별대표가 선출되었는데 반해, 실질적인 병력을 지휘 통솔하는 군사령관은 1번 선출되었다. 황진하 군사령관을 UN에서 선출할 당시 대한민국이 UNFICYP 활동에 파병한 부대 병력은 0명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2002년 2월 기준으로 총 파병 병력 474명 중 439명이 UNTAET 활동에 파병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UNFICYP 활동은 중견국 이상 수준의 국가 출신으로서 개인적인 능력을 고려한 선발로 판단될 수 있으며, 황진하 장군은 당시 주미 국방무관을 약 3년 반이나 맡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병력 파병 수와 무관한 활동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파병 병력 현황



〈그림 4〉 시기별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총 파병인원 수 현황<sup>8)</sup>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총 파병 병력 수에 따른 국가 공헌도 순위는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36위이다. 앞선 〈그림 2〉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선 강대국과 중견국이 12개 국가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뒤쳐진 순위라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 병력의 순위가 세계 6위이며, 1위에서 5위 국가들 중 우리보다 파병인원 수가 많은 국가가 중국과 인도임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의 능력 대비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파병한 병력 수를 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2010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약 64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려 10년의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위상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해외파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와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반해 아무런 정책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 현황(2019년 9월 기준)<sup>9)</sup>

| 구 분   | 활 동               | 인원(명) | 활 동               | 인원(명) |
|-------|-------------------|-------|-------------------|-------|
| 부대 단위 | UNIFIL(동명부대, 레바논) | 330   | UNMISS(한빛부대, 남수단) | 286   |

8)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1\\_6701076&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1_6701076&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검색일:2019.09.20.)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파병 현황을 종합하여 재작성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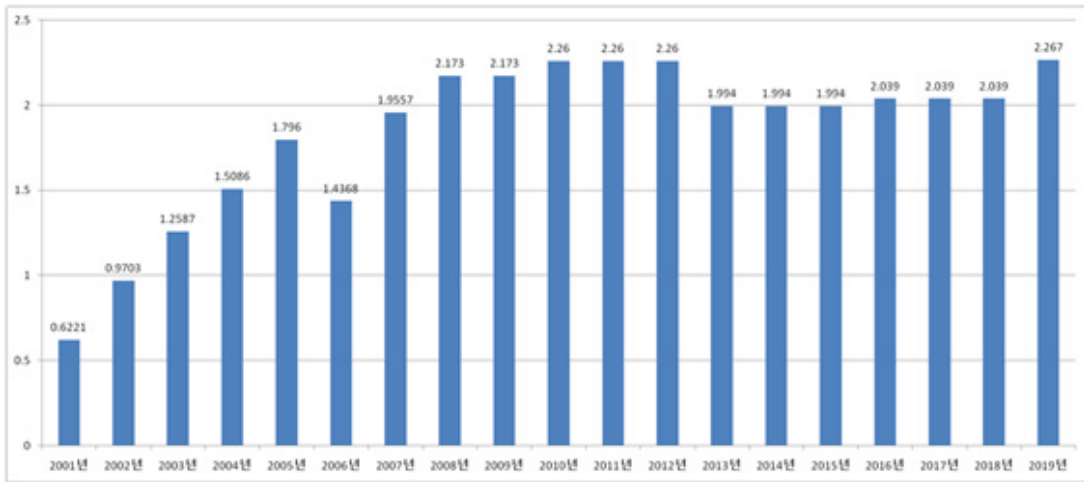
9)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1\\_7053204&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1_7053204&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검색일: 2019.09.20.).

| 구 분   | 활 동     | 인원(명) | 활 동    | 인원(명) |
|-------|---------|-------|--------|-------|
| 개인 단위 | UNMOGIP | 7     | UNMISS | 7     |
|       | UNAMID  | 1     | UNIFIL | 4     |
|       | MINURSO | 4     |        |       |

한, 현재 각 활동별 파병 인원 현황을 분석해보면 부대 단위 파병으로써 레바논 UNIFIL에 총 330명, 남수단 UNMISS에 총 286명을 파병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단위로 파병을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활동은 현재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파견된 활동으로써 대한민국이 파견한 병력은 표면적으로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UNIFIL에서는 이탈리아 출신의 군사령관이 다수 배출되었고, 해당 활동에 이탈리아가 다수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UNMISS의 경우 전통적으로 군사령관은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발되었고, 이들 국가 또한 해당 활동에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현재 부대 단위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2개의 활동에서는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추적 중견국인 인도에서 UNMISS에 해당 활동에서 2위의 병력 파병을 보내면서 군사령관을 배출한 것을 보면 반드시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사령관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UNMISS의 SRSG는 다수의 병력 파견국이 아닌 중견국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병력을 파견한 공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능력만 갖추어 진다면 충분히 선발될 가능성이 큰 분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부담 현황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부담 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D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가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B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2008년부터 2%를 넘어섰다. 올해 2019년부터 2.267%로 증가하여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가 중 11위에 해당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에서는 그 위상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분담금 부담은 직접적인 공헌도가 아니며, 고위직책 선발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그 활동을 인정받지 못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손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보다 앞선 10개 국가 중 9개국이 모두 강대국이고, 이들은 현재 세계 질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10위권대의 재정 공여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5〉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부담 현황

#### 다. 파병 인사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파병병력 교대 주기는 부대 단위 8개월, 개인 단위 1년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병 활동에 대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활동 수가 적으며, 이것은 개인별로 파병을 지원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또는 반기마다 육군본부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평화유지활동에 한하여 교대 주기 8개월을 고려해서 수시로 부대 지휘관, 참모, 감시요원 등을 선발한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파병을 다녀와도 인사 순환정책으로 인해 재 파병의 기회가 적다.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대부분이 최소 2년 이상의 주요 보직과 다양한 활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경쟁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라. 경쟁국 대비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의 위치는 경쟁국인 중견국 중 덴마크에 이어 나이지리아·인도와 같이 2번째 순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국가이며, 그중 앞선 9개국 모두 강대국임을 고려했을 때, 중견국으로서 선두권에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면 위의 중견국들보다 더 많은 리더가 배출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그 이외의 중견국들이 1% 수준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여러 활동에서 다수의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배출한 것을 보면 우리 활동을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이탈리아(9명), 미국(7명), 독일(5명)에서도 여러 번 배출되었으며, 특히 이탈리아는 UNIFIL에서 집중적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해당 활동에서 주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발전방안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중추적 중견국으로서 국격에 맞는 평화유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수가 총 14개 중 6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부대 파병을 하는 활동은 2개이고, 이마저도 파병 병력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세계 속의 군인으로서 고위급 직책에 선발되어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인재가 없으며, 그러한 군 내부의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높은 분담금 부담 대비 고위 직책을 그에 걸맞게 배출해 내지 못한 것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가적 자격과 개인적 능력을 갖추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투 병력의 파병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파병 효과와 UN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해당 활동별 작전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생존가능성과 임무성공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한 후,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의 파병이 필요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 병력의 5.6%에 해당하는 34,000여 명을 보낸 경험이 있었기에 현시점에서의 추가적인 병력 파병은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전제국, 2011, p. 219). 전투 병력 파병은 오히려 실전경험을 늘려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뛰어난 병력을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파병하는 것은 외교적, 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강대국 이탈리아가 1,100여 명을 파병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가 파병하고 있는 현재 인원수만큼 더 파병한다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파병부대는 총 4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편제를 조정하여 사단급 이상으로 격상시킨다면 최소 연대급 이상 병력의 파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대 개편 과정에서 해체부대 병력을 파병 전담부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투 병력을 추가로 파병함으로써 병력 파견 위주의 활동에서 군사령관이 배출된다면 기존에 배출되어 온 감시단장 및 특별대표와 더불어 더욱 확장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개인별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기존 논문의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뚜렷한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이라는 최고 직책에 우리의 인사들이 선발되기 위한 목적의식을 두고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대

표적인 예로 국가급 PKO 센터 설립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군 인원 중 PKO에 관심 있는 자원들을 군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군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을 추가로 파병하여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과거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경험이 있는 인원을 초청하여 정책적 조언을 받거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군에서는 군인들이 해외 파병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군사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이 무엇인지와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초·중급 장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병기회를 부여하고, 파병 관련 조직을 편성하여 그에 걸맞은 편제를 만들어 진급 공식의 수를 늘려 전문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인사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파병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 파병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전 경력을 많이 쌓아 타국의 장교들과 어깨를 견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인원들에게 해외 파병 전문 특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중견, 고위 간부 시절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전역 이후에도 UN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특별대표(SRSG)에도 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군 간부들이 야전에서의 길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군인으로서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파키스탄 감시단장 이었던 김문화 장군이 언급한 “전장에서 Warrior가 필요하지만, 군사 외교 나아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도 Warrior가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김문화, 2011, p. 9).

국가적 자격 측면에서의 전투 병력 파병 수 증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셋째, 특정 활동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정 활동에서 이탈리아, 에티오피아가 집중적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해당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령관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 특별대표직은 병력파병수와 상관없이 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 5>에서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UNTSO(CMO), UNMOGIP(CMO), UNFICYP(SRSG), UNFICYP(FC), MINURSO(SRSG), UNMIK(SRSG), MONUSCO(SRSG), MONUSCO(FC), UNMISS(SRSG), MINUSMA(FC)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10개 분야 중 UNMOGIP(CMO), UNFICYP(SRSG, FC) 3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 이중 부대단위 병력을 파병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UNFICYP(FC), MONUSCO(FC), MINUSMA(FC)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년 동안 부대파병을 해 온 UNFIL의 경우는 개인적인 능력이 된다면 그동안의 국가적 공헌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특별대표(SRSG)로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미 이탈리아가 독점한 UNIFIL(FC)과 앞도적인 병력 파병으로 인도와 네팔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UNDOF(FC), 파키스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MINURSO(FC), 아프리카 중견국이 독점하고 있는 UNAMID(SRSG), 아프리카 국가 위주로 고위 직책이 선발되는 UNAMID(FC), UNISFA(FC), UNMISS(FC), MINUSMA(SRSG), MINUSCA(SRSG), MINUSCA(FC),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MINJUSTH(SRSG)는 전략적으로 제외를 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새로운 활동이 창설된다면 단순히 UN의 부름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설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도의 활동으로 이끌어 간다면 초기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쉬울 것이다.

## V. 결론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근대화라는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이루어 중추적 중견국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외교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분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타 경쟁국 대비 많은 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사이프러스 사령관이었던 황진하 장군은 우리 군의 수준이 다국적군을 지휘할 충분한 능력은 되지만 더 이상 사령관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다(황진하, 2012, p. 9). 2014년 10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브라히미 리포트’이후, 평화활동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유엔 평화활동의 고위급 독립 패널(High 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수요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sup>10)</sup> 이 패널에는 동티모르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강대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와 중견국인 인도, 방글라데시, 호주, 브라질, 노르웨이, 그리고 약소국인 튀니지, 가나에서 각각 1명의 인사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패널 명단에 대한민국 출신의 인사는 없었으며 이는 유엔 평화활동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 발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실시한 해외 파병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74.1%이며, 파병 찬성의 이유로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들고 있다(『국방일보』, 2016. 7. 31.). 즉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병의 중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뜻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화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

10)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14-10-31/secretary-generals-statement-appointment-high-level-independent>(검색일: 2016.11.25.).

여 국익을 증진하는 중견국 외교의 특성상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에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자격 측면에서 공헌도로 간주하는 전투 병력 파병 수를 늘려야 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군의 세계화라는 안보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관료가 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과 동시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파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내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출신의 인사가 고위직책에 배출되었을 때, 큰 홍보를 통해 그 우수성을 인식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성윤. (2009).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09-3). 한국국방연구원.
- 고성윤. (2011). 『대한민국,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길: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접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고성윤·이근수·부형욱. (2009). “세계 주요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및 운영체제 연구.”(연구보고서 안2009-2726). 한국국방연구원.
- 김문화. (2011). “한국의 파병정책 발전방향.”『PKO 저널』, 제3호.
- 김영호. (2009). “스마트 파워 전략과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국제정치연구』, 제12권 제2호. 서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우상. (2012). 『신한국 책략 III』. 서울: 세창출판사.
- 김우상. (2016). 『중견국 책략』. 서울: 세창출판사.
- 박순향. (2014). “유엔 평화활동 분석과 한국 평화활동의 방향.”『군사』, 제90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손열 외. (2015). 『한국의 중견국 외교 역사, 이론, 실제』. 서울: 명인문화사.
- 송승중. (2006).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서울: 연경문화사.
- 송재익. (2016). “중견국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방안: 유엔의 국제평화활동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군사학 논총』, 제5집 제1권. 서울: 미래군사학회.
- 이근수·정상돈·신범철. (2008).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연구보고서 안08-2547). 한국국방연구원.
- 이신화. (2013).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유엔 PKO vs. 다국적군 파병.”『아시아연구』, 제56권 제2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장삼열. (2014). “한국군 국제평화활동 현주소 및 발전방안: 자이툰부대 파병 사례 중심으로.”『군사논단』, 제78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 전경만. (2010).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여외교 정책적 평가와 발전방안.”『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전재국. (2011). 『소프트 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 평화활동』.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조용만. (2010). “유엔 PKO활동 분석과 한국 PKO의 전략적 실용화 방향.”『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1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 최윤미. (2016). “한국 평화유지활동(PKO)의 새 지평: 성인지 통합과 여성참여 확대방안 강구.”『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최은석. (2014). “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파병의 법적 검토.”『군사논단』, 제77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2009). 『국가이익을 위한 PKO활동연구: PKO활동 이론적 고찰과 사례 중심 연구』. 서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황진하. (2012). “대한민국 국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PKO 저널』, 제5호.

『국방일보』. (2016. 7. 31.). “‘국군 해외파병’국민 74.1% 찬성.”

Chapnick, Adam. (1999). “The Middle Power.” Canadian Foreign Policy, vol. 7 no. 2. Ottawa: Canadian Foreign Policy Publishing Group.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and Kim R. Nossal. (1993).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국방부. (2016).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6701076&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6701076&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검색일:2019.09.20.).

국방부. (2016).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7053204&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_43923&boardSeq=_7053204&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검색일:2019.09.20.).

유엔. <https://digitallibrary.un.org>(검색일: 2019.09.20.).

유엔. <https://peacekeeping.un.org/en/mission/>(검색일: 2019.09.20.).

유엔.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검색일: 2019.09.20.).

유엔. <https://www.un.org/en/sc/documents/letters/>(검색일: 2019.09.20.).

유엔. (2014). “Secretary-General’s statement.”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14-10-31/secretary-generals-statement-appointment-high-level-independent>(검색일: 2016.11.25.).

## 각 활동별 특별대표 사령관 명단

2019. 9. 20부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1. MINURSO<br>사하라<br>1991.4    | Colin Stewart             | 2017.11.21 ~<br>현재        | 캐나다                    | General Zia Ur Rehman     | 2019.2.17. ~<br>현재        | 파키스탄       |
|                                |                           |                           |                        | Xiaojun Wang              | 2016.11.7 ~<br>2019.2.17. | 중국         |
|                                | Kim Bolduc                | 2014.8 ~<br>2017.11.21    | 캐나다                    | Muhammad Tayyab Azam      | 2015.9.18. ~<br>2016.11.7 | 파키스탄       |
|                                | Wolfgang Weisbrod-Weber   | 2012.5.1 ~<br>2014.7.31   | 독일                     | Imam Edy Mulyono          | 2013.7.24. ~<br>2015.9.17 | 인도네시아      |
|                                | Hany Abdel-Aziz           | 2009.10 ~<br>2012.4.30    | 이집트                    | Abdul Hafiz               | 2011.4.11. ~<br>2013.7.23 | 방글라데시      |
|                                | Julian Harston            | 2007.2 ~<br>2009.10       | 영국                     | Jingmin Zhao              | 2007.8.28. ~<br>2011.4.10 | 중국         |
|                                | Francesco Bastagli        | 2005.9.1 ~<br>2007.2      | 이태리                    | Kurt Mosgaard             | 2005.9.12. ~<br>2007.8.27 | 덴마크        |
|                                | Alvaro de Soto            | 2003.8.9.~<br>2005.8.31   | 페루                     | Gyorgy Szaraz             | 2002.8.11.~<br>2005.8.11  | 헝가리        |
|                                | William Lacy Swing        | 2001.12.1.~<br>2003.8.8   | 미국                     | Claude Buze               | 1999.11.1.~<br>2002.8.10  | 벨기에        |
|                                | William Eagleton          | 1999.3.23.~<br>2001.11.30 | 미국                     | Bernd S. Lubenik          | 1997.8.1.~<br>1999.10.31  | 오스트리아      |
| Charles F. Dunbar              | 1997.12.31.~<br>1999.3.22 | 미국                        | Jorge Barroso de Moura | 1996.11.30.~<br>1997.7.31 | 포르투갈                      |            |
| 2. MINUSCA<br>중앙아프리카<br>2014.4 | Mankeur Ndiaye            | 2018.12.1. ~<br>현재        | 세네갈                    | Balla Keita               | 2016.2.10. ~<br>현재        | 세네갈<br>세네갈 |
|                                | Parfait Onanga-Anyanga    | 2016.1.6. ~<br>2018.12.21 | 가봉                     |                           |                           |            |
|                                | Babacar Gaye              | 2014.7 ~<br>2016.1.5      | 세네갈                    | Martin Chomu Tumenta      | 2014.7 ~ ~<br>2015.11.30  | 카메룬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3. MINUSMA<br>말리<br>2013.3    | Mahamat Saleh<br>Annadif                    | 2016.1.15. ~<br>현재                | 차드             | Dennis<br>Gyllensporre            | 2018.10.2. ~<br>현재          | 스웨덴   |
|                               |   |                                   |                | Jean-Paul<br>Deconinck            | 2017.2.28. ~<br>2018.10.2   | 벨기에   |
|                               | Mongi Hamdi                                 | 2014.12.12.<br>~ 2016.1.14        | 튀니지            | Michael<br>Lollesgaard            | 2015.3.6. ~<br>2016.12.31   | 덴마크   |
|                               | Albert Gerard<br>Koenders                   | 2013.5.15. ~<br>2014.10           | 네덜란드           | Jean Bosco<br>Kazura              | 2013.7.1~<br>2014.12.14     | 르완다   |
| 4.<br>MONUSCO<br>콩고<br>2010.7 | Ms. Leila<br>Zerrougui                      | 2017.12.21.<br>~<br>현재            | 알제리            | Elias Rodrigues<br>Martins Filho  | 2018.4.10. ~<br>현재          | 브라질   |
|                               | Maman Sambo<br>Sidikou                      | 2015.10.8. ~<br>2017.12.21        | NIGER          | Derrick<br>Mbuyiselo<br>Mgwebi    | 2015.12.29. ~<br>2018.1.30. | 남아공   |
|                               | Martin Kobler                               | 2013.7 ~<br>2015.10.8             | 독일             | Carlos Alberto<br>dos Santos Cruz | 2013.6 ~<br>2015.12.2       | 브라질   |
|                               | Roger A. Meece                              | 2010.7.1.<br>~2013.7              | 미국             | Chander<br>Prakash                | 2010.7.8. ~<br>2013.6       | 인도    |
| 5. UNAMID<br>수단<br>2007.7     | Jeremiah<br>Nyamane<br>Kingsley<br>Mamabolo | 2017.3.27.~<br>현재                 | 남아공            | Leonard<br>Muriuki Ngondi         | 2017.8.2.~<br>현재            | 케냐    |
|                               | Martin<br>Ihoeghian<br>Uhomobhi             | 2015.10.27.~<br>2017.3.27.        | 나이지리아          | Frank Mushyo<br>Kamanzi           | 2015.12.14.~<br>2017.8.2    | 르완다   |
|                               | Abiodun<br>Oluremi<br>Bashua                | 2014.10.10.<br>~2015.10.26        | 나이지리아<br>(임시직) | Paul Ignace<br>Mella              | 2013.6.3 ~<br>2015.12.31    | 탄자니아  |
|                               | Mohamed Ibn<br>Chambas                      | 2013.4.1. ~<br>2014.10.9          | 가나             |                                   |                             |       |
|                               | Aichatou<br>Mindaoudou<br>Souleymane        | 2012.8.1.~<br>2013.3.31.<br>(임시직) | 임시직            | Patrick<br>Nyamvumba              | 2009.9.1 ~<br>2013.3.31     | 르완다   |
|                               | Ibrahim<br>Gambari                          | 2010.1.~<br>2012.7.31             | 나이지리아          |                                   |                             |       |
|                               | Rodolphe<br>Adada                           | 2007.10~<br>2009                  | 콩고             | Martin Agwai                      | 2007.10~<br>2009.8          | 나이지리아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6. UNDOF<br>폴란드<br>1974.6 |                        |    |                     | Shivaram Kharel     | 2019.5.29. ~ 현재         | 네팔    |
|                           |                        |    |                     | Francis Vib-Sanziri | 2017.10.10. ~ 2019.5.29 | 가나    |
|                           |                        |    |                     | Jai Shanker Menon   | 2016.2.8. ~ 2017.10.10. | 인도    |
|                           |                        |    |                     | Purna Chandra Thapa | 2015.1.3 ~ 2016.2.7     | 네팔    |
|                           |                        |    |                     | Iqbal Singh Singha  | 2012.8.14 ~ 2015.1.2    | 인도    |
|                           |                        |    |                     | Natalio Ecarma III  | 2010.3.10. ~ 2012.8.13  | 필리핀   |
|                           |                        |    |                     | Wolfgang Jilke      | 2007.1.18. ~ 2010.2     | 오스트리아 |
|                           |                        |    |                     | Bala Nanda Sharma   | 2004.1.15.~ 2007.1.17   | 네팔    |
|                           |                        |    |                     | Franciszek Gągor    | 2003.8.13.~ 2004.1.16   | 폴란드   |
|                           |                        |    |                     | Bo Wrangler         | 2000.8.13.~ 2003.8.12   | 스웨덴   |
|                           |                        |    |                     | Cameron Ross        | 1998.9.1.~ 2000.7.6     | 캐나다   |
|                           |                        |    |                     | David Stapleton     | 1997.6.1.~ 1998.8.31    | 아일랜드  |
|                           |                        |    | Johannes C. Kusters | 1995.1~ 1997.5.31   | 네덜란드                    |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7.<br>UNFICYP<br>사이프러스<br>1964,3 | Elizabeth Spehar       | 2016.2.26.~<br>현재        | 캐나다                           | Cheryl Pearce                         | 2018.10.6.~<br>현재          | 호주    |
|                                  |                        |                          |                               | Mohammad Humayun Kabir                | 2016.7.30. ~<br>2018.10.6  | 방글라데시 |
|                                  | Lisa M. Buttenheim     | 2010.5.1 ~<br>2016.2.25. | 미국                            | Kristin Lund                          | 2014.8.13. ~<br>2016.7.29  | 노르웨이  |
|                                  |                        |                          |                               | Chao Liu                              | 2011.1.1 ~<br>2014.8.12    | 중국    |
|                                  | Tayé-Brook Zerihoun    | 2008.4.1 ~<br>2010.4.30  | 에티오피아                         | Rear Admiral Mario Sánchez Debernardi | 2008.4.1 ~<br>2010.12.31   | 페루    |
|                                  | Michael Møller         | 2005.12.1<br>2008.3.31   | 덴마크                           | Rafael Barni                          | 2006.2.11 ~<br>2008.3.31   | 아르헨티나 |
|                                  | Zbigniew Wlosowicz     | 2000.6.1~<br>2005.11.30  | 폴란드                           | Herbert Figoli                        | 2004.1.4. ~<br>2006.2.10   | 우르과이  |
|                                  | James Holger           | 1999.10.1~<br>1999.12.31 | ?                             | Jin Ha Hwang                          | 2002.1.16.~<br>2003.12.25  | 대한민국  |
|                                  | Dame Ann Hercus        | 1998.7.1.~<br>1999.9.30  | 뉴질랜드                          | Victory Rana                          | 1999.12.16.~<br>2001.12.15 | 네팔    |
|                                  |                        |                          |                               | Evergisto Arturo de Vergara           | 1997.3~<br>1999.12.15      | 아르헨티나 |
| Han Sung-Joo                     | 1996.5~<br>1997.4      | 대한민국                     | Ahti Toimi Paavali Vartiainen | 1994.8.1.~<br>1997.2.28               | 핀란드                        |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8. UNIFIL<br>레바논<br>1978.3 |                        |    |                                    | Stefano Del Col          | 2018.7.10. ~<br>현재        | 이태리  |
|                            |                        |    |                                    | Michael Beary            | 2016.6.24 ~<br>2018.7.10. | 아일랜드 |
|                            |                        |    |                                    | Luciano Portolano        | 2014.7.25. ~<br>2016.6.24 | 이태리  |
|                            |                        |    |                                    | Paolo Serra              | 2012.1.29 ~<br>2014.7.24  | 이태리  |
|                            |                        |    |                                    | Alberto Asarta<br>Cuevas | 2010.1.29.~<br>2012.1.28  | 스페인  |
|                            |                        |    |                                    | Claudio Graziano         | 2007.2.18 ~<br>2010.1.28  | 이태리  |
|                            |                        |    |                                    | Alain Pellegrini         | 2004.2.18 ~<br>2007.2.17  | 프랑스  |
|                            |                        |    |                                    | Lalit Mohan<br>Tewari    | 2001.8.6.~<br>2004.2.17   | 인도   |
|                            |                        |    |                                    | Seth Kofi<br>Obeng       | 1999.12.1.~<br>2001.5.15  | 가나   |
|                            |                        |    |                                    | Jioje Konouse<br>Konrote | 1997.10.1.~<br>1999.11.30 | 피지   |
|                            |                        |    | Stanislaw<br>Franciszek<br>Wozniak | 1995.4~<br>1997.9.30     | 폴란드                       |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9. UNISFA<br>abyei<br>sudan<br>2011.6 |                        |                          |     | Mehari Zewde Gebremariam             | 2019.4.23.~<br>현재         | 에티오피아 |
|                                       |                        |                          |     | Gebre Adhana Woldezgu                | 2018.4.23.~<br>2019.4.23. | 에티오피아 |
|                                       |                        |                          |     | Tesfay Gidey Hailemichael            | 2017.2.20.~<br>2018.4.23. | 에티오피아 |
|                                       |                        |                          |     | Hassen Ebrahim Mussa                 | 2016.1.21.~<br>2017.2.20. | 에티오피아 |
|                                       |                        |                          |     | Birhanu Jula Gelalcha                | 2014.6.20 ~<br>2016.1.20  | 에티오피아 |
|                                       |                        |                          |     | Yohannes Gebremeskel Tesfamariam who | 2013.1.25 ~<br>2014.6.19  | 에티오피아 |
|                                       |                        |                          |     | Tadesse Werede Tesfay                | 2011.7.29.~<br>2013.1.24  | 에티오피아 |
| 10. UNMIK<br>코소보<br>1999.6            | Zahir Tanin            | 2015.9.1.~<br>현재         | 아프칸 |                                      |                           |       |
|                                       | Farid Zarif            | 2011.10.11<br>2015.8.31  | 아프칸 |                                      |                           |       |
|                                       | Lamberto Zannier       | 2008.6 ~<br>2011.6.30    | 이태리 |                                      |                           |       |
|                                       | Joachim Rücker         | 2006.9.~<br>2008.6       | 독일  |                                      |                           |       |
|                                       | Søren Jessen-Petersen  | 2004.6.16 ~<br>2006.7.1  | 덴마크 |                                      |                           |       |
|                                       | Harri Holkeri          | 2003.7.29.~<br>2004.6.15 | 핀란드 |                                      |                           |       |
|                                       | Michael Steiner        | 2002.1.23.~<br>2003.7.28 | 독일  |                                      |                           |       |
|                                       | Hans Hækkerup          | 2001.1.22.~<br>2002.1.22 | 덴마크 |                                      |                           |       |
|                                       | Bernard Kouchner       | 1999.7.15.~<br>2001.1.21 | 독일  |                                      |                           |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11.<br>UNMISS<br>남수단<br>2011.6 | David Shearer          | 2016.11.30.~<br>현재       | 뉴질랜드 | Shailesh Tinaikar                     | 2019.5.26.~<br>현재          | 인도    |
|                                |                        |                          |      | Frank Mushyo<br>Kamanzi               | 2017.4.3.~<br>2019.5.26.   | 르완다   |
|                                |                        |                          |      | John Mogoa<br>Kimani Ondieke          | 2016.6.18.~<br>2017.4.3.   | 케냐    |
|                                | Ellen Margrethe<br>Løj | 2014.7.22.~<br>216.11.30 | 덴마크  | Yohannes<br>Gebremeskel<br>Tsfamariam | 2014.6.16 ~<br>2016.6.17   | 에티오피아 |
|                                | Hilde Johnson          | 2011.6.15 ~<br>2014.7.7  | 노르웨이 | Delali Johnson<br>Sakyi               | 2012.12.6 ~<br>2014.6.9    | 가나    |
|                                |                        |                          |      | Moses Bisong Obi                      | 2011.6.15. ~<br>2012.11.18 | 나이지리아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12.<br>UNMOGIP<br>인-파<br>1949.1 |                        |    |                   | JoséEladio Alcaín                 | 2018.6.28.~<br>현재         | 우루과이  |
|                                 |                        |    |                   | Per Gustaf Lodin                  | 2016.7.3.~<br>2018.6.28   | 스웨덴   |
|                                 |                        |    |                   | Delali Johnson<br>Sakyi           | 2014.6.30 ~<br>2016.7.2   | 가나    |
|                                 |                        |    |                   | Young-Bum Choi                    | 2012.6.16 ~<br>2014.6.16  | 대한민국  |
|                                 |                        |    |                   | Raul<br>Gloodtdofsky<br>Fernandez | 2010.12.24 ~<br>2012.6.15 | 우루과이  |
|                                 |                        |    |                   | Kim Moon Hwa                      | 2008.11 ~<br>2010.11.27   | 대한민국  |
|                                 |                        |    |                   | Dragutin Repinc                   | 2005.9.14.~<br>2007.12.28 | 크로아티아 |
|                                 |                        |    |                   | Guido Dante<br>Palmieri           | 2004.8.1~<br>2005.9.13    | 이탈리아  |
|                                 |                        |    |                   | Pertti Puonti                     | 2002.9.1.~<br>2004.7.28   | 핀란드   |
|                                 |                        |    |                   | Hermann K.<br>Loidolt             | 2001.8.1.~<br>2002.8.30   | 오스트리아 |
|                                 |                        |    |                   | Manuel Saavedra                   | 2000.7.11.~<br>2001.7.10  | 우루과이  |
|                                 |                        |    |                   | Jozsef Bali                       | 1999.3.4.~<br>2000.3.3    | 헝가리   |
|                                 |                        |    |                   | Sergio Hernán<br>Espinosa Davies  | 1998.3~<br>1999.3.3       | 칠레    |
|                                 |                        |    |                   | Ahn Choung-Jun                    | 1997.3~<br>1998.3         | 대한민국  |
|                                 |                        |    | Alfonso Pessolano | 1994.12.16.~<br>1997.3            | 이탈리아                      |       |

| 순서  | Special Representative    |                       |                | Force Commander       |                        |      |
|---|---------------------------|-----------------------|----------------|-----------------------|------------------------|------|
|   | 이름                        | 기간                    | 국적             | 이름                    | 기간                     | 국적   |
| 13. UNTSO<br>(Head of Mission and Chief of Staff)<br>중동<br>1948.5 |                           |                       |                | Kristin Lund          | 2017.10.3 ~ 현재         | 노르웨이 |
|   |                           |                       |                | Arthur David Gawn     | 2015.8 ~ 2017.10.3     | 뉴질랜드 |
|   |                           |                       |                | Michael Finn          | 2013.7 ~ 2015.7.31     | 아일랜드 |
|   |                           |                       |                | Juha Kilpia           | 2011.3.26.~ 2013.6.30  | 핀란드  |
|   |                           |                       |                | Robert Mood           | 2009.1.16 ~ 2011.2     | 노르웨이 |
|   |                           |                       |                | Ian Campbell Gordon   | 2006.12.1 ~ 2009.1.15  | 호주   |
|   |                           |                       |                | Clive Lilley          | 2004.10.1.~ 2006.11.30 | 뉴질랜드 |
|   |                           |                       |                | Carl A. Dodd          | 2002.4.1.~ 2004.9.30   | 아일랜드 |
|   |                           |                       |                | Franco Ganguzza       | 2000.4.1.~ 2002.3.31   | 이탈리아 |
|   |                           |                       |                | Timothy Roger Ford    | 1998.4~ 2000.3.31      | 호주   |
|   |                           |                       | Rufus Kupolati | 1995.10.1.~ 1998.3.31 | 나이지리아                  |      |
| 14. MONU JUSTH Haiti<br>2017.10                                   | Ms. Helen Meagher La Lime | 2018.5.4 ~ 현재         | 미국             |                       |                        |      |
|   | Ms. Susan D. Page         | 2017.10.31 ~ 2018.5.4 | 미국             |                       |                        |      |



**MEMO**



**MEMO**